

鄭英善 教授指導
碩士學位 請求論文

紫霞 申緯의 飲茶生活에 관한 考察

- 『警修堂全藁』를 중심으로 -

2004

誠信女子大學校 文化產業大學院

文化產業學科 禮節茶道專攻

卓孝榮

논문개요

우리의 음다풍속이 7세기에 자리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사료는,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의하면 “차는 선덕여왕(632-647) 때부터 있었다.”라는 기록으로 적어도 647년에는 차나무나 음료로서의 차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신라시대에 성행된 기록이 있는 한국의 다도문화는 고려시대에는 더욱 번성하였다가 조선시대에 와서 불교의 쇠퇴와 함께 조금 쇠퇴하였으나 선비들과 승려들에 의하여 그 맥을 유지해 오다가 근대에 이르러 차의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현재까지 향유하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한국 전통 생활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조선후기 다문화(茶文化)가 중흥되던 시기의 인물인 자하(紫霞) 신위(申緯: 1769-1845)는 차(茶)에 관한 시를 100편 이상 남겼으며 차(茶)를 사랑한 대다인(大茶人)이다. 그동안 신위에 관한 연구물이 많이 나왔지만 거의 대부분이 시·서·화 삼절을 다루는 내용에 중점을 둔 연구물들이었고 그의 음다 생활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신위의 시집인 『경수당전고(警修堂全藁)』에 있는 다시들을 통해 신위의 음다 생활에 중점을 두어 그의 다생활을 고찰하였다.

그의 다사(茶事)를 살펴보면 차의 종류로는 용척다병(龍脊茶餅), 보림백모(寶林白茅), 학원차(壑源茶), 단차(團茶)와 월단차(月團茶) 등의 떡차와 말차 및 혼합차인 매화차를 즐겨 마신 기록이 있다.

다구(茶具)로는 탕관, 찻잔류, 차 화덕과 다반(茶盤)이 있으며, 차를 끓일 때의 용어로 팽다(烹茶), 전다(煎茶), 점다(點茶), 약다(瀹茶) 등을 썼으며, 차의 보관법과 팽다법에 관한 기록도 있다. 신위는 차의 맛을 단맛과 쓴맛으로 나타냈으며,

향과 색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다. 또 차를 끓일 때 물의 중요성에 관한 것과 딸감에 관해서 언급했다.

그리고 그는 손수 차를 끓이기도 했으나 주로 다동(茶童)이 끓여 주는 차를 마신 기록이 많으며 특별한 절기인 중양절, 칠석, 선달그믐에 깎다한 기록이 있다.

음다 공간은 다옥(茶屋)과 다실, 감옥, 별장 등에서 차를 마셨다고 했으며, 신위 주변의 다인으로는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초의(艸衣) 장의순(張意洵)을 비롯해 미산(米山) 권영좌(權永佐)와 청나라 사람인 란설(蘭雪) 오승량(吳嵩梁)에 관한 기록이 있다.

18·9세기의 시(詩)·서(書)·화(畵)로 유명했던 그는 생애 후반에 불교에 관심을 가지면서 선승들 특히 초의(艸衣) 장의순(張意洵)과 가깝게 지내면서 차(茶)를 통해 선(禪)에 도달했다고 말하고 있다.

자하 신위는 한국 다도문화사에 큰 업적을 남겼으며 오늘날 다인들은 다사(茶事)나 음다 정신에서 본 받을 바가 많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범위와 내용	3
II. 신위의 생애(生涯)와 다시(茶詩)	6
1. 신위의 생애(生涯)	6
2. 『경수당전고(警修堂全藁)』의 개관	15
3. 『경수당전고(警修堂全藁)』의 다시	16
III. 다시(茶詩)를 통해 본 신위의 음다생활	22
1. 다사(茶事)의 내용	22
2. 차의 종류	22
3. 다구(茶具)	29
4. 팽다법(烹茶法)	37
5. 품다(品茶)	42
6. 물과 떼감	45
7. 팽다(烹茶)의 주체(主體)	52
8. 음다 시간	55
9. 음다 공간	62
10. 배치물	68

IV. ‘茶’를 통한 문화적 교유(交遊)와 다회(茶會)	70
1. 사회적 배경	70
2. 여러 다인들	74
3. 그 밖의 교유 인물	80
4. 다회(茶會)	83
 V. 신위의 음다 정신	 86
 VI. 결 론	 89

참 고 문 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다시 소재의 분석	19
<표 2> 다구의 종류와 쓰여진 횟수	30
<표 3> 차 끊이기의 용어	39

I. 서론

1. 연구 목적

문화가 발전함에 있어 한 나라의 전통적인 생활 풍습이 끼치는 영향은 실로 크다.

신라와 고려시대에 널리 민중의 사랑을 받던 차(茶)는, 조선조에 들어와서 불교를 억압하는 기운에 밀리면서 점차 쇠퇴하게 되지만 선비들과 승려들에 의해 그 맥을 유지해 오다가, 세계화된 현대에 이르러 전통생활의 문화적 특성과 건강에 유익한 차의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선현들은 음다 생활을 통해서 맑고 깨끗한 정신세계를 더욱 고결한 차원으로 승화시켜 정신문화의 꽃을 피웠으므로, 그 맥을 이어 현대에 와서도 차(茶)생활은 여유와 멋을 가져다주고 마음의 평화를 이끌어 주는 하나의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있다.

우리 조상들이 생활의 지혜로 남긴 문화 유산 중 음다(飲茶) 풍속은 현대인의 정신 수양에 밑거름이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다시(茶詩)이다. 다시(茶詩)는 그 자체가 형식상에 있어 한시의 한 장르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시 속에서 차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편의상 다시(茶詩)라고 이름 붙인 것일 뿐이다. 그 속에서 '차(茶)'가 작자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생활의 일부로서 언급되고 있는 것에서 더한 멋을 느낄 수 있다.

다시(茶詩)에서는 다른 시들과는 달리 정신적인 여유로움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선현들이 즐긴 차를 통해 시·서·화·꽃·예절 등 많은 것을 알게 되느니 만큼 차를 종합예술이라고도 한다.¹⁾

한국 다문화(茶文化)의 중흥조라 불리우는 조선 말엽에는 선비와 승려를 중심으로 음다 풍속이 성하였고 당시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 해거 홍현주, 초의 장의순, 자하 신위 등이 있다.

이들 중 자하 신위에 관해서는 단편적인 내용과 차와 관련된 많은 시를 남긴 인물이라는 점 등이 알려져 왔을 뿐 그의 음다 생활 전반에 관한 종합적 연구는 시작단계에 있다. 자하 신위에 관해서는 시문학, 예술, 그리고 철학에 관한 연구 내용은 상당수 있다.

신위는 그 당시 실학자 및 선승들과 시·서·화를 통하여 폭넓은 교유를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그의 시집인 『경수당전고(警修堂全藁)』의 시문을 통하여 살펴 볼 수 있다. 그는 이 시집에 약 4천수나 되는 한시를 남겼는데 이 중 다시(茶詩)에 관한 것이 110여수 포함되어 있다.²⁾ 이는 우리 나라 역대 문장가들 중에서 가장 많은 다시를 남긴 인물이며 시·서·화 삼절로도 이름 났던 신위는 음다의 풍류를 즐기던 대다인(大茶人)이었다.

현대와 그리 멀지 않은 18·9세기의 신위의 음다 생활과 당시의 다도 문화를 살펴보는 것은 세계화된 오늘날 개성을 지닌 우리 다문화(茶文化)를 재음미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다구나 차 끓이는 법, 차의 종류, 음다 공간 등은 전통을 잇는데 무척 중요하다.

근대에 다문화(茶文化)가 우리의 생활에 깊숙히 들어오면서 단순히 차맛만을 음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를 읽으면서 그 속에 녹아있는 정서까지도 함께 느껴 보고자 하는 이들이 많이 늘고 있다. 답답하고 빠른 삶에서 벗어나 보다 느긋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기를 동경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옛날의 다시가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³⁾ 차와 인연이 깊은 아름다운 시를 음미하는

1) 장영동, 「韓國 茶道의 속 멋」 (서울: 빗남, 1999). 서문.

2) 신위 저, 권경렬 편역, 「다옥에 손님오니 연기가 피어나네」 (서울: 너럭바위, 1998), p.214.

일은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데 결코 부질없는 일이 아닐 것이다.

우리 선조들이 자신의 음다 생활을 어려운 한시(漢詩)속에서 나타내기를 즐겼는데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춘추 전국 시대의 시집인 『시경(詩經)』은 작품 그 자체나 시인의 마음에 사됨이 없으므로 성스러운 경전으로 여겨 오경에 속한다. 다산 정약용이 말한 바와 같이, 좋은 시는 인간 성정의 바름이 핵심을 이룬다. 그래서 고려와 조선시대에 인재를 등용하는 과거시험에도 시가 반드시 들어갔다. 그런데 시의 이러한 근본은 한국 문사다도(文士茶道)의 철학적 바탕인 사무사(思無邪)와 같다. 따라서 차를 끓여 마시는 일과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에 많은 시가 창작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시는 리듬이나 운율이 있어 노래하듯 따라 외울 수 있으므로 생활감과 가깝다. 그런데 서술문은 오묘한 의미를 함축된 맛으로 즐길 수가 없으며, 반복해서 읽을 재미가 없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옛 다인들은 시 속에 학문적 내용을 실었고 그들의 다도 정신을 되새겼으며, 자연과 하나가 된 경지와 멋을 실었던 것이다.⁴⁾

이에 본 연구는 자하 신위와 그의 다시를 고찰하여 다문화사(茶文化史)에 있어 자하 신위의 위상과 그의 음다(飲茶) 생활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와 내용

본 연구는 신위의 다시(茶詩)를 통해 그의 음다 생활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그동안 자하 신위와 관련된 많은 연구 업적들을 살펴보면, 유은희⁵⁾는 신위의

3) 신위 저, 권경렬 역, 전계서, p.5.

4) 장의순 저, 정영선 역, 「동다송」 (서울: 너럭바위, 1998), 서문.

5) 유은희, 「紫霞 申緯의 文人畫 研究」 (석사학위논문, 정신문화연구원, 1983).

혹죽화와 산수화 그리고 인물화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손팔주⁶⁾는 신위의 시와 문학을 연구 분석하였다. 방경순⁷⁾은 현실인식과 사회비판, 조선 시에 대한 인식, 불교적 세계관과 선시, 인간내면세계 탐색 등으로 분류하여 자하의 시를 연구하였다. 이연세⁸⁾는 성리학과 실학의 문학사상을 배경으로 한 시문학을 발표하였다. 강미자⁹⁾와 김현정¹⁰⁾는 신위의 서예사상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권난희¹¹⁾는 신위의 『경수당전고(警修堂全藁)』에 수록되어 있는 『동인논시절구(東人論詩絕句)』에 대해 연구하였고 조성주¹²⁾는 연행전후를 중심으로 한 시·서·화 예술의 사상적 내용을 발표하였다. 차길선¹³⁾은 예술적 측면에서의 한시론을 연구하였으며, 신상기¹⁴⁾는 서·화에 나타난 신위의 예술세계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외에도 여러 편의 연구물들이 있지만 모두 신위의 시에 관련된 연구들이다.¹⁵⁾

위에서와 같이 지금까지 자하 신위에 대한 연구가 시·서·화를 주로 하여 많은 연구물이 나왔지만 한시에 나타난 읍다 생활을 주제로 연구한 논문은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약 4000여수를 상회하는 시가 실려있는 자하 신위의 한시집 『경수당전고(警修堂全藁)』에서 ‘다(茶)’자와 ‘명(茗)’자 등의 단어가 들어 있는 시 전체를 대상으로 주제별 분석을 시도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이 중에는 제목에 차(茶)

6) 손팔주, 「申緯 詩文學 研究」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84).
 7) 방경순, 「紫霞 詩 研究」 (석사학위논문, 상명여대 대학원, 1988), p.4.
 8) 이연세, 「紫霞 申緯의 詩文學 研究」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1990), p.4
 9) 강미자, 「紫霞 申緯의 藝術世界」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전통예술대학원, 2003), p.2.
 10) 김현정, 「紫霞 申緯의 書畫 研究」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4), p.3
 11) 권난희, 「紫霞 申緯의 東人論詩絕句」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1995), p.3.
 12) 조성주, 「紫霞 申緯의 藝術思想 形成에 關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1996), p.3.
 13) 차길선, 「紫霞 申緯의 詩文學 시고」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1999), p.2.
 14) 신상기, 「紫霞 申緯의 文人書畫」 (석사학위논문, 원광대 대학원, 2003), p.2.
 15) 김성희, 「紫霞 申緯의 題畫詩 攷」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89).
 정원표, 「紫霞 申緯의 漢詩 研究」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7).
 손팔주, 「申緯 詩文學 研究」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84).

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것도 있으나 시의 주제와는 무관하게 배경에서 살짝 언급된 것도 있다.

논자는 신위의 약 110여편 정도 되는 다시 중 차와 관련이 깊은 90여편 정도의 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신위의 음다 생활을 고찰하기 위하여 본 논고는 I장 서론에 이어 전기적 연구로서 II장 신위의 생애와 다시에서 신위의 생애와 교유 관계 그리고 시의 대가인 신위의 시작(詩作) 활동과 『경수당전고(警修堂全藁)』와 『警修堂全藁』에 나타난 '차(茶)'가 들어 있는 시 제목과 다시(茶詩)의 소재를 표를 통해 분석하고자 하며, III장 다시를 통해 본 신위의 음다 생활에서는 다사(茶事)의 내용과 차의 종류, 대구, 팽다법, 품다, 물과 맵감, 팽다의 주체, 음다 시간, 음다 공간, 배치물 등으로 나누어 II장의 표의 내용과 연결시켜 구체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IV장 차(茶)를 통한 문화적 교유와 다회 에서는 사회적 배경과 차를 통해 교유했던 여러 다인들에 대해 알아보고 또 두 사람 이상이 보여 차를 마신 내용 즉 다회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V장 신위의 음다 정신에 이어, VI장 결론에서는 앞서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정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자하 신위의 유고집인 『경수당전고(警修堂全藁)』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그리고 손팔주의 『신위전집(申緯全集)』, 신석초의 『석북·자하시집(石北·紫霞詩集)』, 권경렬이 엮은 『다옥에 손님오니 연기가 피어나네』의 문헌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둔다.

Ⅱ. 신위의 생애(生涯)와 다시(茶詩)

1. 신위의 생애(生涯)

1) 가계(家系)

신위(申緯)는 조선 영조45년(1769) 서울의 당시 삼대 정당의 하나인 소론(小論) 집안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평산(平山)이다.

신위(申緯)의 시조(始祖)는 고려 태조를 추대한 개국공신인 장절공(壯節公) 신숭겸 [(申崇謙):877-927] 이며 조선 세종 좌의정을 지낸 문희공(文僖公) 개 [(槩):1374-1446] 를 중시조로 하는 문희공파(文僖公派)이다. 이때부터 서울의 귀족이 되었으며 여러 대에 걸쳐 학자, 문인, 장군, 예술가들이 많이 배출되었다.¹⁶⁾ 개(槩)는 집현전(集賢殿) 시학 및 우참찬(右參贊)이 되어 <고려사(高麗史)> 수찬(修撰)에 참여한 대학자이며, 이조판서(吏曹判書)로 야인(野人)정벌에 큰 공을 세우고 우의정(右議政)과 좌의정(左議政)에 이른 대정치가였다.¹⁷⁾

그의 아버지 대승 [(大升):1731-1795] 의 자(字)는 여명(如明)으로 영조38년(1762)에 진사(進士)에 급제하고 경연시 문과(經筵試 文科)에 장원하였다.¹⁸⁾ 정조5년(1781)에 동지부사(冬至副使)가 되어 연경에 다녀왔고 정조8년(1784)에 가희대부(嘉喜大夫)의 가자(加資)를 받았으며, 뒤에 사헌부(司憲府) 대사헌(大司憲), 성균관(成均館) 대사성(大司成)등의 벼슬을 역임 하였다.¹⁹⁾

자하의 어머니 함평(咸平) 이씨(李氏)는 영조대에 승지(承旨)를 지낸 윤신(潤身)의

16) 허경진, 「紫霞 申緯 詩選」 (서울: 평민사, 1991), p.135.

17) 방경순, 전개 논문, p.5.

18) 손팔주, 「신위 연구」 (서울: 태학사, 1983), p.14.

19) 상계서, p.14.

손녀이며 정언(正言)을 지낸 영록 [(永祿):1727-?] 의 딸이다.²⁰⁾ 처가는 창녕(昌寧) 조씨(曹氏)로 특히 그의 장인 윤희 [(允禧):1725-1799] 은 호조참의(戶曹參議)와 지돈녕부사(知敦寧府使)등을 지냈으며 초서(草書)와 예서(隸書)에 능하고 초(草)·석(石)·죽(竹) 등의 그림에도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²¹⁾

이상과 같이 신위의 가계는 중시조(中始祖) 개(槩) 이후 문(文)·무(武)에 혁혁한 공을 세워 대대로 국가에 공헌한 훌륭한 집안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외가나 처가 또한 당대의 문벌이 높은 가계(家系)로서, 그의 장인은 특히 서화(書畵)에 능하였으며 문장에도 정통했던 인물이다.²²⁾

이러한 가계의 성장 및 가족 배경은 자하(紫霞)의 성격과 문학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생애(生涯)

자하는 영조45년(1769) 8월 11일 서울 장흥방(長興坊)에서 부친 신대승(申大升)과 모친 함평(咸平) 이씨(李氏)의 차남(次男)으로 태어났다.²³⁾ 휘(諱)는 위(緯)이고 자(字)는 한수(漢叟)이다. 호(號)는 홍전(菴田)이라 하였다가 뒤에 자신이 수학하였던 경기도 시흥(京畿道 始興)에 있는 자하산(紫霞山)의 이름을 따서 자하(紫霞)로 바꾸었다.²⁴⁾

신위는 비교적 늦은 9세가 되던 해에 부(父)인 참판 공(參判 公)의 사랑을 받아 글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재동(才童)으로 문명(聞名)하고 14세에 표암(豹菴) 강세광의 문하에 들어가 시·서·화를 함께 익히면서 시서화 삼절로서의 기초를 닦아 나갔다.²⁵⁾

20) 신상기, 전계 논문, p.4.

21) 손팔주, 전계서, pp.11-15.

22) 방경순, 전계 논문, pp.5-6.

23) 허경진, 전계서, p.135.

24) 상계서, p.135.

풍고(楓臯) 김조순 [(金祖淳):1765-1832] 은 자하의 탁월한 재능에 감복하여 그의 흑죽(黑竹)에 대하여 극찬을 하여 실로 자하는 하늘이 낸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재주가 뛰어났다.²⁶⁾ 고 하였다. 이처럼 신위는 어릴 때부터 남달리 총명하고 글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정조23년(1799)에 31세의 나이로 알성시의 문과 을과에 급제하였다. 정조는 신위의 재명(才名)을 듣고 그를 편전으로 불러 병수(屏樹)에 붙일 대자(大字)와 비전(秘殿)의 영련을 쓰게 하였다.²⁷⁾ 그후 정조는 그를 의정부(議政府) 초계문신(抄啓文臣)에 참여시키는 등 관심을 보였고 이렇게 해서 그의 관직 생활은 시작되었다.²⁸⁾ 정조의 신임을 받은 그는 순조가 즉위한 후에도 행홍문록(行弘文錄)에 합격하고 뒤이어 순조4년(1804) 36세에는 부당회권(都堂會圈)에도 합격하였다.²⁹⁾

그는 성격이 호탕하고 자기의 재주를 자부하여 인정과 물태(物態)에 소홀하였으며 지나친 예도(禮道)에 얽매이지 않고 시(詩)와 주(酒)와佳人(佳人)를 벗하며 흑죽(黑竹)를 그리면서 삶을 즐기는 생활태도를 취하여 벼슬길에 오른지 10년 동안이나 한직(閑職)에서 보냈었다.³⁰⁾ 또한 그의 거침없는 시사(時事)에 대한 논평은 가끔 위정자의 비위를 거슬렀으므로 항상 외직 신세를 면치 못하였다.³¹⁾

순조11년(1811)에 이르러 정삼품에 올랐으니, 이미 만년을 바라보는 43세의 일이다.³²⁾

여기서 한가지 특이할 만한 사실은 이때까지 쓴 그의 작품이 거의 전무(全無)하여 이 시기의 그의 사상이나 작품경향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³³⁾

25) 신상기, 전계 논문, p.4.

26) 방경순, 전계 논문, p.6.

27) 손팔주, 전계서, p.15.

28) 방경순, 상계 논문, p.7.

29) 손팔주, 상계서, pp.15-16.

30) 방경순, 상계 논문, p.7.

31) 유성준, 「신위작품집」 (서울: 형실출판사, 1982), pp.155-156.

32) 허경진, 전계서, p.136.

33) 44세때 연경에 가서 옹방강에게 청나라 시학에 대하여 물었고, 이 만남에서 감동을 받

순조12년(1812) 7월에는 청나라로 가는 주청사(奏請使)의 서장관(書壯官)이 되어 연경(燕京)에 갔으며 이때 옹방강(翁方綱)과의 만남은 그의 예술세계(藝術世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³⁴⁾ 자하(紫霞)가 연경에서 당대의 석학(碩學)인 옹방강(翁方綱) 부자(父子)와 교유(交遊)한 후부터 그의 시학(詩學)은 급변하고, 옹방강에게 청나라 시학에 대하여 논하였던 이 만남에서 감동을 받고 돌아와 그때까지의 글들을 모두 불태워 버렸다³⁵⁾ 고 한다. 연경에서 돌아와 순조12년(1812) 44세에 병조참지(兵曹參知)가 되었고, 12월에는 통정대부(通政大夫)가 되었다.³⁶⁾ 순조13년(1813) 45세에 곡산부사(谷山府使)로 전임(轉任)되었으며, 순조18년(1818) 50세에 춘천부사(春川府使)로 부임하였는데 그 후 1년 6개월의 재임기간 중에 자하(紫霞)는 선정(善政)함은 물론 여가를 이용하여 약 200여 수의 시를 지었으니, 그의 시는 이때부터 난숙기에 이르렀다.³⁷⁾ 이때 많은 책을 읽었고, 많은 시를 지었다. 자하(紫霞)는 춘천에서 노년의 쓸쓸하고 허무한 정회(情懷)를 왕사정의 『추류시(秋柳詩)』에 바탕으로 한 『후추류시(後秋柳詩)』 20수를 비롯하여, 소양강(昭陽江) 청평산(淸平山) 일대를 관람하고 그곳의 경치·풍물·고적들을 소재로 하여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특히 『맥풍십이장(貌風十二章)』의 서문에는 그의 애민의식(愛民意識)이 잘 나타나 있다.³⁸⁾

순조19년(1819) 토호들을 누르다가 도리어 장관으로부터 견책을 받아 파직하게 되자 고을 백성들이 울며 송별하였다고 한다. 파직된 후 자하(紫霞)는 고적을 답사하고 시를 짓거나 글씨와 그림에 몰두하면서 한적한 생활을 하였다.³⁹⁾ 이 시기의 연행(燕行) 및 곡산부사(谷山府使)와 춘천부사(春川府使)등의 두 차례의 외직

고 돌아와 그때까지의 글들을 모두 불태워 버렸기 때문이다.

34) 허경진, 전계서, p.136.

35) 상계서, p.136.

36) 조성주, 전계 논문, p.7.

37) 허경진, 상계서, p.136.

38) 방경순, 전계 논문, p.9.

39) 손팔주, 전계서, p.18.

은 자하(紫霞)의 시세계(詩世界)를 넓혀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⁴⁰⁾

과관(罷官) 이후 서울로 돌아온 자하(紫霞)는 쉬지 않고 시작(詩作)을 계속하였다.⁴¹⁾ 순조22년(1822) 54세에 다시 종삼품(從三品)에 오르고 병조참판(兵曹參判)이 되었으며, 다음해 정월 파직되었다가 1823년 9월에 사간원 대사간(司諫院 大司諫)이 되었다. 순조27년(1827) 그의 나이 59세 때 부인 창녕 조씨(昌寧 曹氏)가 죽자 부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 '도망육절(悼亡六絶)'과 '도망후오절(悼亡後五絶)'을 지어 슬픔을 달랬지만 3년 전부터 앓고 있던 다리의 병이 더욱 악화되자, 인생에 대한 비감으로 무상함을 실감한 그는 불교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⁴²⁾

순조28년(1828) 60세 때에는 강화유수(江華留守)로 나가게 되었다.⁴³⁾ 순조30년(1830) 그의 나이 62세 되던 해 문조(1809-1830)가 갑자기 승하(昇遐)하고 외척(外戚)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자 그들에게 미움을 받아 강화유수(江華留守)를 사임하였다. 외척의 사임을 받은 윤상도가 자하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려 곤경에 처하게 되었으나 김조순(金祖淳)의 변호로 무사하였고, 이에 불안을 느껴 자하 산장(紫霞山莊)에 기거하였다.⁴⁴⁾ 자하 산장에서 생활을 하면서 우리 나라 역대시인들의 시를 시로서 논평한 『동인논시절구삼십오수(東人論詩絶句三十五首)』를 비롯하여 36종의 매화를 읊은 『매화삼십육영(梅花三十六詠)』과 시조를 칠언절구로 한역한 『소악부사십수(小樂府四十首)』 등 무게 있는 작품을 많이 지었다.⁴⁵⁾

순조32년(1832) 64세에는 순조가 도승지(都承旨)를 제수 하였으나 개양문(開陽門) 밖에서 대죄(待罪)하고 입궐(入闕)하지 않았다. 이때 순조는 하룻밤 사이에 27차례나 엄명을 내려 도승지에 취임할 것을 재촉하였으나 끝내 듣지 않았으며,

40) 손팔주, 전계서, p.18.

41) 상계서, p.19.

42) 허경진, 전계서, p.137.

43) 신상기, 전계 논문, p.5.

44) 상계 논문, p.5.

45) 허경진, 상계서, p.137.

11월1일 평신진 첨사(平薪鎭 僉使)를 제수(除授)하였다.⁴⁶⁾ 순조33년(1833) 65세에 사간원 대사간(司諫院 大司諫)에 제수 되었으나 경기어사(京畿御使) 이시원(李是遠)에 의해 강화유수(江華留守) 시절의 흠을 잡아 탄핵하는 상소를 받아 평산으로 귀양가게 되었다.⁴⁷⁾ 순조34년(1834) 66세에 유배에서 풀려나 도승지가 되었고, 순조35년(1835) 67세에 이조(吏曹)·병조참판(兵曹參判)을 거쳐 이듬해 다시 대사간(大司諫)이 되었다.⁴⁸⁾

헌종4년(1838) 70세에 호조참판이 되었는데 왕명(王命)을 받아 어병(御屏)에 글씨를 써서 진상(進上)하게 되었다.⁴⁹⁾ 헌종9년(1843) 75세에는 정조조(正朝朝)의 초계문신(抄啓文臣)으로 가의대부(嘉義大夫)의 가자(加資)를 받았지만 76세에 노환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다. 이때 헌종이 사람을 보내어 문병하고 녹용을 하사할 정도로 그를 아꼈다.⁵⁰⁾

노환으로 완력이 쇠한 중에도 그는 작시(作詩)를 계속하여 ‘연행별시오수(燕行別詩五首)’ ‘여유구지매(余有九枝梅)’등의 많은 작품을 남기고 헌종11년(1845) 3월에 자택에서 결국 화려한 붓을 놓고 말았다.⁵¹⁾

3) 교유 관계

한 작가의 사상이나 생활은 그 인물이 내왕하였던 사람들을 분석함으로써 더욱 자세하고 객관화 될 수 있다.

신위는 타고난 성품이 호탕하여 당쟁이 심한 시대조류 속에서 비록 소론 출신이었지만 오히려 타당인사와의 교환이 잦았다. 자하는 소론에 속한 인물로 경산

46) 신상기, 전계 논문, p.5.

47) 상계 논문, p.5.

48) 손팔주, 전계서, p.22.

49) 방경순, 전계논문, p.11.

50) 손팔주, 상계서, p.24.

51) 방경순, 상계 논문, p.12.

(經山) 정원용 [(鄭元容):1783-1836] , 교산(橋山) 이유원 [(李裕元):1814-1888] 과 교분이 두터웠고, 남인으로서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과 유산(酉山) 정학연(丁學淵) 부자를 비롯하여, 한치응 [(韓致應):1760-1824] , 홍의호 [(洪義浩):1758-1826] , 이학규 [(李學逵):1770-1833] 등과 막역한 사이였으며, 노론의 김조순 [(金祖淳):1765-1832] , 김유근 [(金適根):1758-1840] 부자와 추사(秋史) 김정희 [(金正喜):1786-1856] 등이 모두 그의 지기였다.⁵²⁾

『경수당전고(警修堂全藁)』를 통해 자하가 거론하고 있는 인물은 약 4백명에 이른다. 물론 이들 모두가 자하와 중대한 영향을 주고 받았다고는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가 실로 광세적(曠世的)인 교유의 폭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기엔 부족함이 없다.⁵³⁾

시·서·화 삼절로 유명했던 신위의 작품 가운데는 고금(古今)을 막론한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주로 시회(詩會)를 통하여 그들과 문학, 차, 서화에 대하여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았다.⁵⁴⁾

자하는 전통적인 유가의 가문에서 성장하였지만 1827년 그의 나이 59세 때 부인 조씨가 죽자 만년에 불교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불교계의 선승들 금파대사(錦波大師), 보혜(普惠), 선홍(善洪)등과 교유가 빈번하였는데 특히 추사의 지우였던 초의 장의순(艸衣 張意洵)과는 많은 시를 주고받을 만큼 돈독한 사이였다.⁵⁵⁾ 자하는 초의의 『일지암시고』에 서문을 쓴 사람으로 인연이 남달리 각별한 사이였다.⁵⁶⁾ 그는 초의보다 17세 연상의 나이였으므로 문학에 있어서나 경험에 있어서 한창 원숙기에 접어든 인물이었다.⁵⁷⁾ 더욱이 부처의 생년 문제를 시로 주고받을

52) 신상기, 전계논문, p.6.

53) 김현정, 전계 논문, p.9.

54) 상계 논문, p.9.

55) 이연세, 전계 논문, p.13.

56) 임종욱, 『艸衣選集』 (서울: 동문선, 1993), p.25.

57) 신상기, 상계 논문, p.17.

만큼 유·불에 있어서 상당한 지식까지 겸비한 사람이었다.⁵⁸⁾

자하가 당시의 당쟁과 승속의 한계를 넘어서 폭넓은 교류를 했던 주된 통로는 차와 시였다.⁵⁹⁾

조선시대의 선진 외래 문화 유입에 있어서 주된 통로는 연행사(燕行使)를 통해서 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중국과 조선의 정치적인 관계나 문물교류 뿐만 아니라 특히 학문적 그리고 문화적 교류에서 연행사의 공헌은 지대하다. 신위는 1812년 청나라에 연행하기 이전부터 이미 중국의 학문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졌었고, 연행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청조 학자들과 계속 교류 하였다.⁶⁰⁾

그러므로 자하의 예술과 관련하여 또 한편으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당대(當代) 청조(淸朝) 인사(人士)들과의 교류 관계다. 자하가 교류 했던 주요 청조 인사는 옹방강(翁方綱)을 비롯해 그의 아들 옹수곤(翁樹崐), 란설(蘭雪) 오송량(吳嵩梁), 장추음(蔣秋吟), 주학년(朱學年), 엽지선(葉志詵) 등이 있다.⁶¹⁾

자하의 예술세계와 관련하여 이들과의 교류가 중요한 이유는 후반기의 자하 예술의 변화에 대한 이들의 영향력이 그만큼 지대했기 때문이다.⁶²⁾ 자하는 이들을 통해 당대 창조 문화의 진면목을 습득할 수 있었고, 비로서 동아시아적 국제 감각에 눈뜨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옹방강은 자하는 물론 추사 예술의 향방까지도 전격적으로 변화시킬 만큼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다.⁶³⁾ 그러므로 조선후기 자하의 시에 있어서 청조 인사들과의 관계는 간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의 시집 『경수당전고(警修堂全藁)』에는 란설에게 보내는 다시가 있다.

58) 신상기, 전계 논문, p.17.

59) 김현정, 전계 논문, p.17.

60) 상계 논문, p.19.

61) 상계 논문, p.13.

62) 김동진, 전계 논문, p.7.

63) 상계 논문, p.7.

4) 시작 활동(詩作 活動)

신위는 조선 왕조 정조·순조 양대에 걸쳐 시·서·화 삼절(三絶)로 이름을 떨친 시인이다. 창강 김택영(滄江 金澤榮)의 말에 의하면 “시(詩)가 가장 높았고 화(畫)가 그 다음인데 묵죽(墨竹)을 잘 그렸고 서(書)가 다음 간다.”고 하였다.⁶⁴⁾

영조 45년(1789)에 났으니 강산 이서구(薑山 李書九)등 사가(四家)의 뒤를 이어 나온 시인이었다. 또 창강의 말을 빌면 영묘(英廟) 이하는 시의 기풍이 일변하여 이혜환(李惠寰) 금대(錦岱) 부자와 이형암(李炯菴)·유냉재(柳冷齋)·박초정(朴楚亭)·이강산(李薑山)의 차례로 혹은 기위한 것을 주로 삼았는데 자하는 바로 그를 이어 나왔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하는 실학파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던 그들과는 달리 매우 귀족적이고 호화 취미가 농후하였던 시인이다. 순조 12년(1812) 44세에 주청사 서장관(奏請使 書狀官)으로 연경(燕京)에 갔었던 길이 그의 시작(詩作)생활에 대해 주요한 영향을 끼친 계기가 되었다. 이에 앞서 추사(秋史)가 선비로 북경에 가서 옹담계(翁覃溪)에게 서법(書法)을 배웠었다. 그때 옹(翁)에게 추사가 자하의 시를 소개한 일이 있었다. 옹담계 부자가 자하를 만나자, 곧 그의 뛰어난 재주에 경도하게 된 것이다. 연경에서 귀국한 뒤로 그들과는 계속 서신과 문교를 끊이지 않았다. 신위의 시집에는 중국인들에게 보내는 시가 많다.

순조 18년 문조가 대리를 보던 이듬해에 자하는 강화유수로 출사했다. 이것은 문조가 문학을 좋아해 특명을 내린 것이라고 한다. 문조는 자하를 시켜 당시절구선(唐詩絕句選)을 편찬하게 하였고 손수 양연산방(養硯山房)이라는 편액을 써서 하사한 일도 있었다. 문조의 이러한 권애가 도리어 화가 되어 문조가 일찍 돌아가자 척신들의 공격을 받아 결국 평산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다. 일년만에 귀양에서 돌아와 자하는 시흥(始興) 자하산(紫霞山) 밑에 은거하며 자호를 자하라 일컬었다.

비록 액운은 있었을망정 비교적 평탄하고 일찍 영달했기 때문에 여유있는 금도가 자하의 시작(詩作)에 나타나 보인다. 자하의 시상은 낙관주의적이고 재기활

64) 신석초, 『石北·紫霞詩集』 (서울: 대양 서적, 1975), p.4.

발하여 미감으로 가득차 있으며 기교의 묘가 있다. 완연 중만당(中晩唐)의 기라
한 속에 든 것과 같은 현휘를 느끼게 하는 것이 그 시의 특색이다.

다시 창강의 말에 의하면 “그의 시가 소자첨(蘇子瞻)을 스승으로 삼았는데 일
방으로는 서릉(徐陵)과 왕마힐(王摩詰)·육무관(陸務觀)의 사이에 출입하여 능히
염(艷)하고 능히 야(野)하며 능히 환(幻)하고 능히 실(實)하며 능히 졸(卒)하고 또
능히 호탕하여 천태만상이 목현신취(目眩神醉)케 한다.”고 하였다. 자하가 처음에
는 성당(盛唐)을 배우다가 뒤에 소동파(蘇東坡)에 기울어 졌는데 이것은 옹담계
와의 교유를 돈독히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옹담계 자신이 소자첨을 매우
존중하였다. 이러한 관계로 자하는 만년에 시작을 자선(自選)할 때 당시를 섭렵
하던 시대의 작품은 모두 버리고 44세 때 것부터 편집하여 담계(覃溪) 옹방강(翁
方綱)이 써준 당명(堂名)을 붙여 『경수당집(警修堂集)』이라 이름 하였다.⁶⁵⁾

2. 『경수당전고(警修堂全藁)』의 개관

『신자하시집(申紫霞詩集)』은 간본(刊本)으로 중국 강소통주(江蘇通州) 한묵림
(翰墨林)에서 광무 11년(1907)에 신식활자본 6권과 보유본을 합하여 2책으로 되
어 있다. 그리고 사본(寫本)인 『경수당집(警修堂集)』은 4권 2책으로 된 것이 전
해지며, 『경수당전고(警修堂全藁)』는 총 85권 16책에 약 4천여 수가 실린 자하
의 시집이다. 『警修堂全藁』는 1812년 신위가 중국의 연경에 다녀 온 뒤의 작품
들이 실려 있다. 자하는 중국에 가서 옹방강을 만나보고는 그의 학문에 감동되
어, 귀국하고 나서 그 전에 지었던 자신의 작품들은 모두 불태웠다고 하는데 만
약 불태우지 않았다면 훨씬 많은 작품들이 전해졌을 것이다.⁶⁶⁾

자하 나이 44세 때의 작품부터 편집하여 담계(覃溪)가 써준 당명(堂名)을 붙여

65) 신석초, 전계서, p.5.

66) 신위 저, 권경렬 역, 전계서, p.213.

『경수당집(警修堂集)』이라 이름하였다. 이것을 자하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둘째 아들 명연(命衍)과 문인이 신미년 이전의 시 약간 권을 첨부하여 도합 10여권의 책으로 만들고 문도 수차례 곁들였으며 정경조가 서문을 썼다.⁶⁷⁾

저작 시기를 따라 싣고 있으며 내용별로 유사한 작품들을 한데 묶어 각 편마다 편명을 붙여 놓았다.

당대의 유명한 문인들과 주고받은 시가 많은 것이 특징이며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자료인 『소악부(小樂府)』 · 『동인논시절구(東人論詩絕句)』 · 『관극절구(觀劇絕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소악부(小樂府)』는 자하의 『경수당집(警修堂集)』에 수록된 작품중에서 한국의 국풍이라고 할 수 있는 시조 40수를 한역한 것으로⁶⁸⁾ 한국 악부 연구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⁶⁹⁾

『동인논시절구(東人論詩絕句)』는 신라의 최치원(崔致遠)에서 조선의 김상헌(金尙憲)에 이르기까지 49인의 시인들의 한시의 작가와 작품 및 문학사조를 시로서 비평한 작품으로 일종의 문예비평이라 할 수 있다.⁷⁰⁾

『관극절구(觀劇絕句)』는 연희(演戲)를 보고 지은 것으로 민속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3. 『경수당전고(警修堂全藁)』의 다시

1) 제목에 ‘茶’가 들어 간 시

자하(紫霞)의 다시 중 제목에 ‘차(茶)’자가 들어 있는 시는 약 10여수 정도 된다. 우리나라 다시에 ‘다(茶)’나 ‘명(茗)’을 소재로 한 시는 2000여수 정도 되나 그

67) 신석초, 전계서, p.5.

68) 손팔주, 전계서, p.165.

69) 권경렬, 전계서, p.213.

70) 손팔주, 상계서, p.201.

중 제목에서 다시(茶詩)임을 알 수 있는 글은 많지 않다.⁷¹⁾ 이는 신위가 대대인(大茶人)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의 생활에서 '차(茶)'가 무척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을 추측케 한다.

제목에 '차(茶)'자가 들어있는 시 제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伊川人贈石銚 汲方斗泉 煮龍脊茶餅 有作⁷²⁾ (이천에 사는 사람이 돌냄비를 주었다. 방두천의 물을 길어 용척차 덩어리를 끓이며 짓는다.)>

(2) <艸衣次余贈錦舩詩韻 甚佳 故更用原韻 賦詩 時艸衣爲其師玩虎大師建三如塔 乞銘詩於海居都尉 乞序文於余 而遺以四茶餅 卽其手製 所謂寶林白茅也 詩中并及之⁷³⁾ (초의 스님이 내가 박영보에게 준 시의 운을 따라 시를 지었는데 매우 좋았다. 그래서 다시 원래의 운을 따라 시를 짓는다. 이때에 초의 스님이 그 스승 완호대사를 위해서 삼여탑을 세우면서 명시(銘詩)는 해거도위에게 짓게 하고, 서문은 내게 부탁하였다. 그러면서 떡차 네 덩어리를 보내 왔는데 바로 그가 직접 만든 것으로 이른바 보림백모(寶林白茅)였다. 시 속에 아울러 그 일을 언급하였다.)>

(3) <汲江煎茶 用坡公試院煎茶韻⁷⁴⁾ (강물을 길어 차를 끓이며 동파(東坡)의 '시험장에서 차를 마시며'라는 시의 운을 따라 짓다.)>

(4) <獄中煎茶 <其一>⁷⁵⁾ (감옥에서 차를 끓이며 1)>

71) 정영선, 「다도철학」 (서울: 너럭바위, 1996), p.312.

72) 申緯, 「警修堂全藁」 1권, p.51.

73) 申緯, 「警修堂全藁」 46권, p.1151.

74) 申緯, 「警修堂全藁」 15권, p.440.

75) 申緯, 「警修堂全藁」 28권, p.722.

(5) <獄中煎茶 <其二>⁷⁶⁾ (감옥에서 차를 끓이며 2)>

(6) <汲南山石間泉 煎茶 茶味迥勝於井水⁷⁷⁾ (남산의 바위 사이에서 나는 샘물을 길어다 차를 끓이니, 차맛이 우물물일 때 보다 훨씬 좋았다.)>

(7) <謝人惠茶盃⁷⁸⁾ (차잔을 준 사람에게 감사하며)>

(8) <艸衣茶味太嫩 故與舊所藏壑源茶和勻 同貯一籠中 更俟陳新相入而用之也 又成一詩 將以示艸衣也⁷⁹⁾ (초의가 준 차맛이 너무 여려서 이전에 소장하고 있던 학원차(壑源茶)와 섞어서 함께 한 상자 속에 넣어 두었다. 후에 묵은 것과 새것이 서로 배어들기를 기다렸다가 썼다. 또 시 한편을 지어 초의에게 주려한다.)>

(9) <早春 煮雪 點茶 偶讀東坡病中大雪 答趙薦詩 遂次其韻⁸⁰⁾ (이른 봄에 눈 녹인 물을 끓여 차를 끓이다가 우연히 동파가 병중에 큰눈이 내려 출입하지 못하고 조천에게 화답한 시를 읽고 마침내 그 운을 따라 짓는다.)>

(10) <象牙茶盤⁸¹⁾ (상아 다반)>

이상과 같이 신위의 시 제목에 '차(茶)'자가 들어 있는 시는 약 10편 정도 된다. 제목은 한시의 운율(韻律)이나 평측(平仄)과는 무관하므로 제목 그 자체가 사

76) 申緯, 「警修堂全藁」 28권, p.723.

77) 申緯, 「警修堂全藁」 30권, p.758.

78) 申緯, 「警修堂全藁」 1권, p.6.

79) 申緯, 「警修堂全藁」 72권, p.1769.

80) 申緯, 「警修堂全藁」 4권, p.77.

81) 申緯, 「警修堂全藁」 17권, p.465.

실 그대로의 중요한 내용일 수 밖에 없다.

2) 신위의 다시(茶詩) 소재 분석

신위의 다시 중 그 내용이 음다 생활과 관련이 깊은 것들을 중심으로 소재별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다시 소재의 분석

다시의 주제	편 수	소 재	주 요 내 용
차의 종류	8	떡 차	용척다병-1,보림백모-1,학원차-1,단차-2,월단차-1
		말 차	가루차-1
		혼합차	매화차-1
다 구	21	탕 관	石銚- 4, 茶鑪-1
		찾잔류	甌- 4, 椀-2, 盞-1, 杯-2
		화 덕	茶爐-1, 茶鑪- 4
		기타 다구	茶盤-1, 瓢-1
팽다의 방법	33	차 끓이기 용어	烹茶- 4, 點茶-2, 煎茶-2, 投湯-1, 瀹茶-2
		다 법	정다산 다법-1, 신차와 구차 섞어서 마시는 법-1
		해안과 송풍	해안-1, 송풍탕- 4
		품 다	차의 맛-5, 차의 향기-7, 색-3
물	8	샘 물	샘물-5
		강 물	한강 물-2
		눈 녹인 물	눈 녹인 물-1
땀 감	3	송 탄	송탄-1
		낙 엽	낙엽을 태워-2
음다의 공간	18	다 옥	다옥- 4, 소옥-2
		다 실	벽로방-2, 산방-1, 서재-2, 소합-1
		기 타	감옥-2, 별장-1
		배치물	다화 -3
차 마시는 때	17	하루중	아침-1, 석양 무렵-3, 밤- 4
		절 기	중양절-1, 칠석날-1, 선달그믐-1
		계 절	봄-3, 가을-3

앞의 표를 정리해 보면, 신위의 시에는 여러 종류의 차(茶)이름이 나오며 이중 떡차의 종류로는 용척다병(龍脊茶餅), 보림백모(寶林白茅), 학원차(壑源茶), 단차(團茶), 월단차(月團茶) 등이 나오고, 말차와 매화차에 관한 내용도 각각 1편씩 나온다. 또한 그의 시에는 여러 다구들이 등장하는데 끓이는 용기로는, '석요(石銚)'와 '다쟁(茶鑪)'이 나오는 시가 총 5편 정도 되며, 구(甌)·완(碗)·잔(盞)·배(杯) 등의 찻잔류가 9편 정도이다. '다로(茶爐)'와 '다로(茶鑪)'의 용어가 5편 정도 나오며, '다반(茶盤)'과 '표(瓢)'가 각각 한번씩 등장한다.

차 끓이는 용어인, 팽다(烹茶)와 점다(點茶)·전다(煎茶)·투탕(投湯)·약다(瀹茶)등의 용어가 총 11번 정도 나온다. 신위의 시에는 묵은 차와 새차를 섞어서 끓여 마셨다는 내용과 정약용 다법을 이용해 차를 마셨다는 내용이 각각 1편씩 있다. 신위는 차를 끓일 때 생기는 차의 거품을 계의 눈에서 나오는 거품에 비유했는데 그와 관련된 시가 1편 정도 있고, 찻물이 끓은 소리를 솔바람 소리에 비유한 내용의 시가 4편 정도 있으며, 차의 폼다에 관한 내용도 다수 있다.

신위의 시에는 물의 중요성을 강조한 시가 총 8편 정도 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물만을 주제로 한 내용이고, 중국의 물과 관련된 시까지 합한다면 그 수는 더 많다. 땀감과 관련된 내용에서 신위는 짐승의 땀을 태워 차를 끓인 것은 아니지만 '송탄(松炭)'이라는 용어가 그의 시에 등장하며, 낙엽을 태워 차를 끓였다는 시가 2편 정도 있다.

신위가 차를 마셨던 공간과 관련된 내용은 배치물까지 합하여 총 18편 정도 되었으며, 신위의 시에서 '차 마시는 때'를 분석해 보면 총 17편 정도의 내용이 있다.

위와 같이 신위의 다시(茶詩)에는 차의 종류, 다구, 팽다법, 물과 땀감, 음다공간, 차 마시는 때 등을 비교적 상세하고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3) 다(茶)와 시(詩)의 긴밀성

‘다(茶)와 시(詩)의 긴밀성’에 대해서 정영선⁸²⁾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차자리에서 시를 짓고 감상하는 풍류가 생겨난 것은 고려 중기에 임춘, 정지상, 김극기, 이인로 등을 중심으로 문사다도가 자리잡기 시작한 12세기이다. 그로부터 시회(詩會)나 시사(詩社)는 흔히 차자리가 되었고, 다석에서는 시를 짓고 또한 시를 감상하였다.

고려말 이송인은 가장 즐거웠던 일을 말하기를 “산방에서 스님과 마주 앉아 차를 끓여 마시며 시를 짓고 답했던 것”이라고 했으니, 차 마시고 시를 감상하는 일은 오늘날로 치면 창작 예술가들의 놀이였다.

다시는 다경(茶經)과 비교될 정도로 중시했다. 그래서 이규보는 “유다를 맛보고 시를 감상하는 것이 다경을 보는 것보다 낫다.”고 했는가 하면, 구봉령은 “다시는 피부와 같고, 다경은 혈맥과 같다.”고 했다.

‘다시(茶詩)’라는 용어를 처음 쓴 다인은 이규보로서 그 내용은 “어찌다 유다시를 지었는데, 그대에게 전해짐을 어찌 뜻했으리.”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서거정은 “소갈병은 사마(司馬)와 같고, 다시로는 옥천(玉川)을 생각한다네.”라고 하였고, 최연의 글에도 ‘다시’라는 용어가 나온다.

초의 장의순이 “차를 끓이고 예를 갖추어 시객을 즐겁게 한다.”고도 했듯이, 차와 시는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음다가 각성 효과를 높일 뿐 아니라 차자리나 차 살림살이는 시적 정경에 어울린다. 그리고 물을 다루며 차를 끓이는 차일이 잡념이나 사된 마음을 없애므로 시를 창작하고 감상할 수 있는 순진한 마음 상태로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⁸³⁾

82) 현재 한국 다문화연구소 소장이며, 「한국 茶文化」 「다도 철학」 역서 「동다송」 등을 출간하였고, 「韓國茶文化研究誌」을 발행하고 있으며, 「茶床과 茶床褥」 「고려의 茶에 관한 연구」 「한국 茶文化에 나타난 儒家思想」 등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83) 정영선, “煎茶의 시”, 「설록차, 11·12월호」 (서울: 태평양 건강 사업본부, 2003),

Ⅲ. 다사(茶詩)를 통해 본 신위의 음다생활

1. 다사(茶事)의 내용

다사(茶事)가 나오는 용어는 한시의 형식에 따라 운율(韻律)과 평측(平仄)을 맞추어야 했으므로 비슷한 내용을 다른 단어로 쓴 경우가 있다.

‘다사(茶事)’는 차를 끓이고 마시는 일을 말한다. ‘명사(茗事)’는 차를 끓여 마시는 일, 즉 다사(茶事)와 같은 말이다.

신위의 시에 나오는 ‘명사(茗事)’의 용어를 보면, “茗事還知堪送老 (차 마시는 일은 노년을 보낼 만 하다는 것을 알기에) / 天涯不計欲移家 (타향까지 이사 올 것은 생각한 적 없네)”⁸⁴⁾ 이다.

차(茶)를 애음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차를 직접 끓이기를 좋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손님에 대한 정성, 숙련된 솜씨, 다사의 재미, 다구 감상, 향기와 맛의 조절 등이다.⁸⁵⁾

2. 차의 종류

신위의 다시에는 ‘다(茶)’를 ‘명(茗)’이라고 한 글이 많이 나온다.⁸⁶⁾ 차의 종류로

pp.34-35.

84) 申緯, 「警修堂全藁」 74권, (서울: 태학사, 1983), p.1798. <東井水(其二)>.

85) 정영선, 「다도 철학」, pp.52-53.

86) 申緯, 「警修堂全藁」 4권, p.77. <早春 煮雪 點茶 偶讀東坡病中大雪答趙薦詩 遂次其韻>.
「警修堂全藁」 6권, p.147. <斗室太史以書相邀曰 兄不欲一弔我耶 時斗室連哭二子 此語絕可悲 遂成短律奉贈>.

申緯 著, 孫八洲 編, 「申緯 全集」 第三集, p.1069. <聖住菴>.

는 떡차가 주류를 이루며 말차, 매화차 등도 나온다.

차의 종류가 들어있는 시들을 원문과 번역을 함께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떡차

‘병차(餅茶, 떡차)’라고 하면 당나라 육우(陸羽)의 『다경』에 나오는 고행차로서, 우리 나라에서는 현대까지 돈차(錢茶)라는 이름으로 전승되어온 떡차이다.⁸⁷⁾

‘떡차’는 시루에서 찌낸 찻잎을 절구에 찼은 다음 분에서 박아낸 것이다. 이것을 달여 마시려면 불에 쪼은 떡차를 나무로 만든 차갈개로 갈아낸 찻가루를 차술에서 달인 다음 찻주발에 따라서 마셨던 것이다.⁸⁸⁾

신위의 시에 등장하는 떡차로는 ‘용척다병(龍脊茶餅)’, ‘보림백모(寶林白茅)’, ‘학원차(壑源茶)’, ‘단차(團茶)’, ‘월단차(月團茶)’ 등이 있었다.

(1) 용척다병(龍脊茶餅)

‘용척다병(龍脊茶餅)’이라는 다명은 청나라 때 광서성에서 나던 전다인 ‘용척차(龍脊茶)’에서 비롯된 것이다.⁸⁹⁾

자하의 다음 시에는 ‘용척다병(龍脊茶餅)’과 ‘공병(貢餅)’ 두가지의 떡차가 나온

申緯 著, 孫八洲 編, 「申緯 全集」 第四集, p.1151. <艸衣次余贈錦船詩韻 甚佳 故更用原韻 賦示 時艸衣爲其師玩虎大師建三如塔 乞銘詩於海居都尉 乞序文於余 而遺以四茶餅 卽其手製 所謂寶林白茅也 詩中并及之>.

申緯, 「警修堂全藁」 58권, p.1402. <雜題>.

申緯, 「警修堂全藁」 57권, p.1412. <本月初二日 恭遇恩叙 特授諫長 家書先到 故吟成四韻 二首>.

申緯, 「警修堂全藁」 64권, p.1568. <肅命之翌日 訪故雨蕉篠飲二侍郎宅 始爲寢 門之哭 有作五首>.

申緯, 「警修堂全藁」 74권, p.1798. <東井水(其二)>.

87) 김명배, 「韓國의 茶詩鑑賞」 (서울: 대광문화사, 1988), p.70.

88) 상계서, p.70.

89) 김명배, 「茶道學論攷」 (서울: 대광문화사, 1996), p.364.

다.

시의 제목은 <伊川人贈石銚 汲方斗泉 煮龍脊茶餅 有作 (이천에 사는 사람이 돌냄비를 주었다. 방두천의 물을 길어 용척차 덩어리를 끓이며 짓는다.)> 로서 그 내용 전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伊川人贈石銚 汲方斗泉 煮龍脊茶餅 有作>

石銚烹茶貢餅香 돌 냄비에 차를 끓이니 공병이 향기로운데
銅瓶汲水佩聲鏘 구리병에 물 길는 소리가 꽤옥처럼 쟁쟁하네
勞形案牘欠伸須 몸을 피곤하게 하는 공문서엔 하품이 절로 나는데
已過松風第二湯⁹⁰⁾ 벌써 송풍탕을 두 번이나 우려냈네.

신위는 선물 받은 돌냄비에 샘물을 길어서 용척차를 달인다고 했다. ‘용척(龍脊)’이라는 말은 가운데 구멍이 있는 돈차를 썬 모양이 용의 등뼈마디와 닮았다고 해서 붙인 떡차 이름이다.⁹¹⁾

위에서 ‘공병’은 용척차의 설명으로 임금에게 바치는 병차 즉 떡차를 말한다.

(2) 보림백모(寶林白茅)

‘보림백모(寶林白茅)’의 원산지는 전라남도의 장흥에 있는 보림사(寶林寺)에서 만든 떡차이다.⁹²⁾

‘보림 백모(寶林白茅)’라는 차 이름이 나오는 시 제목은 다음과 같다.

<艸衣次余贈錦齡⁹³⁾詩韻 甚佳 故更用原韻 賦示 時艸衣爲其師玩虎 大師建三

90) 申緯, 「警修堂全藁」 1권, p.77. <伊川人贈石銚->.

91) 정영신, 「한국의茶文化」 (서울: 너럭마위, 1998), p.212.

92) 김명배, 「茶道學論攷」, p.364.

93) 錦齡은 박영보의 호(號)이다. 조선 현종 때의 문신이며 자(字)는 성백(星伯), 시호(諡號)는 문정(文靖)이다.

如⁹⁴)塔 乞銘詩於海居都尉⁹⁵) 乞序文於余 而遺以四茶餅 卽其手製 所謂寶林白茅也 詩中并及之⁹⁶) (초의 스님이 내가 박영보(朴榮輔)에게 준 시의 운을 따라 시를 지었는데 매우 좋았다. 그래서 다시 원래의 운을 따라 시를 짓는다. 이때에 초의 스님이 그 스승 완호대사를 위해서 삼여탑을 세우면서 명시(銘詩)는 해거도위에게 짓게 하고, 서문은 내게 부탁하였다. 그러면서 떡차 네 덩어리를 보내 왔는데 바로 그가 직접 만든 것으로 이른바 보림백모였다. 시 속에 아울러 그 일을 언급하였다.)>

초의는 신위에게 떡차 네 개를 보내왔는데 그 차 이름이 보림백모이다. 백모라 함은 흰색 지푸라기 띠를 말하므로 거친 잎으로 만든 떡차이다.⁹⁷⁾ 초의는 다론(茶論)과 다도(茶道)를 다산으로부터 배워, 떡차를 만들어 추사에게 보냈고, 다신전⁹⁸⁾을 정서한 이듬해(1831) 신위에게 스승 완호의 탑비 서문을 부탁하면서 자신이 만든 보림백모병차(餅茶) 네 덩어리를 주었는데, 개수가 적은 것으로 보아 상당히 큰 떡차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⁹⁹⁾ 보통 크기의 떡차라도 마르는데 며칠이 걸리므로 거의 다 후발효가 된다.¹⁰⁰⁾

94) 완호대사가 입적한 후 제자들의 꿈에 나타나 “過去如, 現在如, 未來亦復如”라고 하였으

므로 그의 시호를 삼여(三如)라고 한다.

95) 海居都尉는 홍현주를 가르킨다.

96) 김명배, 「韓國의 茶詩鑑賞」, p.71.

97) 정영선, 「韓國의 茶文化」, p.212.

98) 다신전은 그 내용의 전부가 중국의 백과전서에 해당하는 「만보전서」를 옮겨 쓴 것으로 본래의 원전은 명(明)의 장원(張源)이 쓴 「다록(茶錄)」이다. 초의는 그 책에 있는 중국의 제다법과 포다법을 소개함으로써 당시의 다풍을 발전 시키고자 노력했다. 다신전의 내용은 찻잎따기, 차의 품질 식별하기, 차 보관하기, 차 덫는 불 가늠하기, 끓는 물 알맞게 하기, 여린 차와 쇠어버린 차에 대하여, 물 끓이기, 차 주전자에 찻잎 넣기, 차 마시는 멋, 차의 향, 차의 맛, 오염된 차, 샘물의 등급, 물 받아놓기, 차 끓이고 마시는데 쓰는 기구, 찻잔, 행주 형겉, 차의 위생관리 절목으로 되어 있다.

한승원, 「艸衣」 (서울: 김영사, 2003), p.385.

99) 초의 저, 정영선 역, 전계서, p.169.

100) 상계서, p.169.

(3) 학원차(壑源茶)

‘학원차(壑源茶)’는 차 중에서 고급차에 속한 용봉단차를 말한다. 학원은 중국 복건성의 지방이름이다.¹⁰¹⁾ 신위의 시에서 ‘학원차(壑源茶)’가 나오는 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香積飯¹⁰²⁾過淸佛座 향적반 먹은 뒤에 불좌를 깨끗이 하고
松風湯熱淨詩魂 송풍탕 끓여서 시혼을 맑게 하네
評品得聞於鴻漸¹⁰³⁾ 품평은 육우에게서 들을 만 하리니
氣味相投借壑源¹⁰⁴⁾ 학원차로 기운과 맛 서로 투합 시켰네.
.....

학원차는 묵은차이고 초의가 보내 준 차는 햇차였는데 한데 섞어 두었다가 차를 끓여 마셨다. 그 차를 마시고 시혼이 맑아지는 기미(氣味)를 알 수 있었다는 내용이다.

(4) 단차(團茶)와 월단차(月團茶)

‘단차(團茶)’는 찻잎을 찌고 쪼아서 둥근 달 모양의 덩어리로 만든 떡차이다.¹⁰⁵⁾ 조선 시대 단차는 대개 물을 끓여 마시는 떡차를 썼다.¹⁰⁶⁾

‘단차(團茶)’가 나오는 시 내용의 일부분은 다음과 같다.

101) 신위 저, 권경렬 역, 전개서, p.147.

102) 승려들의 식사를 말한다. 향적은 중향세계(衆香世界)의 부처 이름으로 향적여래(香積如來)를 말한다.

103) 鴻漸: 당나라 육우 [(陸羽): 733-804] 의 자(字)이다. 차에 조예가 깊어 후인들이 다신, 다성으로 불렸다. 저서로 차에 관한 전문 이론서인 「다경」 3권이 있다.

104) 申緯, 「警修堂全藁」 72권, p.1769. <艸衣茶味太嫩->.

105) 석용운, 「韓國 茶藝」 (서울: 초의, 1988), p.130.

106) 정영선, 「한국의 茶文化」, p.212.

靑眼¹⁰⁷故人懷麗句 반가운 친구는 좋은 시귀처럼 그리운데

鬢頭¹⁰⁸童子捧團茶¹⁰⁹ 산발한 동자가 단차를 끓여오네

.....

‘단차(團茶)’가 나오는 또 다른 내용을 보면 “對雪三升酌美醞 (눈을 보며 석되의 좋은 술 들이키고) / 敲氷¹¹⁰七椀煎團茶 (얼음 깨고 물을 길어 일곱잔의 단차를 끓이네)”¹¹¹ 이다.

‘월단차(月團茶)’는 고급차의 이름으로 차의 모양이 달처럼 둥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¹¹² ‘월단차(月團茶)’가 나오는 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鴻漸亦高士	홍점은 역시 고매한 선비라서
嗜茶而坎坷	차를 좋아하여 세상에 나가지 않았네
翫物志易喪	사물에 탐닉하면 뜻을 쉽게 잃어버리는 법
寓意 ¹¹³ 名無滌	우의 하면 명예를 더럽히지 않으리라
玉糝恐一瞥	옥삼국은 얼마 못 가서 없어질 듯하고
月團憐半破 ¹¹⁴	월단차는 예석히도 반이나 줄었다네.
.....

107) 진나라 죽림칠현(竹林七賢) 중의 하나인 완적(阮籍)이 반가운 친구가 오면 눈동자가 푸른색으로 변했다고 하는 고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좋아함을 뜻한다.

108)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로 늘어진 모양.

109) 申緯 著, 孫八洲 編, 「申緯全集」 第四集, p.169. <碧蘆舫前庭 散步>.

110) 차를 끓이기 위해 얼음을 깨고 물을 길어 음.

111) 申緯, 「警修堂全藁」 82권, p.1973. <戲用古人五六言詩意>.

112) 신위 저, 권경렬 역, 전개서, p.189.

113) 의사를 다른 사물에 가탁(假託)함. 마음은 두지만 사물에 깊이 빠져들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114) 申緯 著, 孫八洲 編, 상계서, p.77. <早春 煮雪 點茶 偶讀東坡病中大雪答趙薦詩 遂次其韻>.

함께 넣어 마신 차를 뜻한다. <啜梅(매화차를 마시며)>라는 제목의 시에는 “茗葉
梅化同一瀾 (차잎과 매화를 함께 넣어 우리니) / 誰能香味辨中邊 (누가 향기와
맛을 가려낼 수 있으리오)”¹²¹⁾ 라고 하였다.

신위는 차의 맛을 잘 내기로 유명하다.¹²²⁾ 그 당시에 이미 차와 매화를 함께
넣어 우려 마시는 다법을 쓰고 있었다.

<매화차를 마시며> 제목의 시에서 자하 신위는 매화를 ‘명엽(작설차잎)’과 함
께 우려 그 향기와 맛으로 즐거움을 더하였음을 볼 수 있다. 매화와 작설차는 향
기의 아름다움이나 강도가 비슷하고 서로 어우러지므로 분별하기가 어렵다. 이
글에서 자하는 차잎과 매화의 맛을 세밀히 감상하고자 했음을 볼 수 있다. 매화
시의 대가인 자하는 매화를 씹어 먹으며 입안의 향기를 즐기기도 하였다.¹²³⁾

매화는 향기가 높아 꽃만으로도 끓이는 매화차는 꽃봉오리를 따서 말려 두었
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 마시는 것인데, 홑꽃잎의 매화는 은은한 향기가 맑고 높
아 연꽃이나 난초 꽃의 향기에 비견할 만 하다.¹²⁴⁾

3. 다구(茶具)

‘구(具)’는 갖추다와 구비하다, 그릇의 뜻으로 쓰인다.¹²⁵⁾ 여기서 ‘다구(茶具)’는
차를 마시기 위해 갖추어야 할 여러 종류의 기구를 말한다.

자하의 시에 나오는 다구의 내용을 대략 구분해 보면 차를 끓이는 탕관, 찻잔,

121) 申緯, 「警修堂全藁」 77권, p.1862. <啜梅>.

122) 정영선, “한국 다문화의 증흥조론”, 「차 문화 연구지」 (한국 다문화 연구소, 1998, 3),
p.13.

123) 정영선, “다시의 이해와 감상”, 「설록차, 3·4월호」 (서울: 태평양 건강사업본부,
2004), p.31.

124) 상계서

125) 김철환, 「漢韓大字典」, 편집국 편 (서울: 민중서림, 1997), p.261.

화덕과 기타 다구 등이다.

다구의 종류와 쓰여진 횃수를 표로 만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다구의 종류와 쓰여진 횃수

다 구	탕 관		차 간				화 덕		기 타	
	石銚	鑿	甌	椀	盞	杯	茶爐	茶鑪	茶盤	瓢
쓰여진 횃수	4	1	4	2	1	2	1	4	1	1

1) 탕관

‘탕관’은 차를 끓일 때 썼던 것으로 솔 그리고 돌냄비가 있다.

차물을 끓이는 용기로 『경수당전고(警修堂全藁)』에는 ‘석요(石銚)’와 ‘쟁(鑿)’이 나오는 시가 여러 편 있다. ‘요(銚)’는 자루와 귀때가 달린 냄비이다. 초두(鑿斗)와 같이 자루손잡이가 있는 작은 두구리도 ‘요(銚)’라고 한다.¹²⁶⁾

신위의 글에는 돌로 만든 냄비를 뜻하는 ‘석요(石銚)’에 관한 시가 4편 정도 있다. 신위는 차물을 끓이기 위해 돌로 만든 탕관을 즐겨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石銚烹茶貢餅香 석요에 차를 끓이니 떡차가 향기롭고
銅瓶汲水佩聲鏘¹²⁷⁾ 구리병에 물 길는 소리가 패옥 소리처럼 울리네.
.....

시의 제목에 눈으로 차를 끓인다는 ‘석요(石銚)’가 있는 다른 시를 보면 “吹火向石銚 (돌냄비를 향해 불을 일으키니) / 松風洶掀簸 (솔바람 소리를 내며 물이

126) 정영선, 『한국의 茶文化』, p.154.

127) 申緯, 『警修堂全藁』 1권, p.51. <伊川人贈石銚 汲方斗泉 煮龍脊茶餅 有作>.

날아오르네)”¹²⁸⁾ 와 “石銚銅鼎蕉浪雨 / 茶半香初每嘉枳”¹²⁹⁾ 이라 하였고, ‘요(銚)’에 관한 또 다른 시에는 “小瓢分銚落佩響 (작은 표주박으로 떠서 요에 부으니 패옥소리가 나고) / 活火發陽族沫輕 (불이 활활 타오르니 거품이 가볍게 생겨나네)”¹³⁰⁾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신위는 찻물을 끓이기 위해 돌로 만든 탕관을 즐겨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쟁(鑿)’은 사전을 보면 세발이 달린 작은 쇠술이다.¹³¹⁾ 라고 되어 있다. 신위의 시에서는, “夢回我與茶鑿嘴 (꿈에서 깨 보니 나와 다쟁의 부리가) / 一樣綿綿氣息存 (한결같이 면면히 숨쉬며 같이 있네)”¹³²⁾ 라고 하였다. 이 글에서 ‘다쟁(茶鑿)’은 세발달린 쇠술 취(嘴) 즉 부리가 달려 있는 모양임을 알 수 있다.

2) 찻잔

신위의 시에는 찻잔을 뜻하는 글이 들어 있는 시가 여러 편 있다.

조선시대 주로 쓰인 찻잔 이름으로 완(椀), 구(甌), 배(杯), 종(鍾), 잔(盞) 등이 있고 그 중에서 ‘완(椀)’이 가장 많이 쓰였는데¹³³⁾ 신위의 시에도 이러한 찻잔 종류들이 언급되었고 그 중에서 ‘구(甌)’가 많이 쓰인 것이 특징이다.

신위의 시에서 차와 관련된 찻그릇의 종류와 시에 나온 횟수를 정리하면,甌 4회, 椀 2회, 杯 2회, 盞 1회, 기타 1회이다.

128) 申緯, 전개서, p.77. <早春 煮雪 點茶 偶讀東坡病中大雪答趙薦詩 遂次其韻>.

129) 申緯, 「警修堂全藁」 56권, p.1362. <偶爲歌->.

130) 申緯, 「警修堂全藁」 15권, p.440. <汲江煎茶 用坡公試院煎茶韻>.

131) 장삼식, 전개서, p.702.

132) 申緯, 「警修堂全藁」 28권, p.722. <獄中煎茶>.

133) 정영선, 「한국의 茶文化」, p.222.

食前方丈侍妾數百雖快意 많은 음식과 시중드는 수백명의 첩들이 비록 만
 족을 준다하나
 不如玉川七椀色味香絕時¹⁴⁰⁾ 옥천자의 일곱잔 차가 색과 맛과 향이 절정일 때
 만은 못하리라

옥천자는 노동(盧仝)을 뜻한다. 위 글은 노동(盧仝)이 쓴 <走筆謝孟諫議寄新茶(붓을 달려 간의대부 맹간(孟簡)이 햇차를 보내 준 것에 대해 급히 써서 사례함.)> 이라는 시를 인용한 것이다.

‘완(椀)’이 들어 있는 다른 내용은 “敲冰七椀煎團茶 (얼음 깨고 물을 길어 일곱잔의 단차를 끓이네)”¹⁴¹⁾ 이다. 여기서 ‘칠완(七椀)’은 노동의 시에 차를 일곱잔을 마시는 동안의 느낌의 변화를 말한 구가 있다.¹⁴²⁾ 중국 원문에 ‘완(碗)’이라고 한 것에 반해 신위는 ‘완(椀)’이라 했다.¹⁴³⁾

(3) 잔(盞)

‘잔(盞)’은 『성호사설』에서 말차를 점다 하는 사발을 일컫기도 하였고¹⁴⁴⁾, 『다신전』에는 다탕을 담아 마시는 작은 그릇으로도 불리웠다.¹⁴⁵⁾

‘잔(盞)’이 들어 있는 시는 다음과 같다.

140) 申緯, 『警修堂全藁』 15권, p.440. <汲江煎茶 用坡公試阮煎茶韻>.

141) 申緯, 『警修堂全藁』 82권, p.1973. <戲用古人五六言詩意->.

142) 신위 저, 권경렬 역, 전개서, p.177.

143) 유희재, “중국의 고전 다시 감상(1)”, 『다문화 연구지』 (한국다문화연구소,1991), pp.33-34. <走筆謝孟諫議寄新茶>이라는 제목의 내용에 “..... 一碗侯吻潤 二碗破孤悶 三碗搜枯腸 (중략) 四碗發輕汗 (중략) 五碗肌骨清 六碗通仙靈 七碗不得也”이라 했다.

144) 정영선, 『한국의茶文化』, p.228에서 재인용.

145) 임종욱, 『艸衣選集』, 다신전 편 (서울: 동문선, 1993), p.368.

茗香詩韻動關情 차 향기와 시의 운치는 감흥을 일으키니
一字敲詩一盞傾¹⁴⁶⁾ 한 글자 다듬고서 차 한잔을 기울이네

.....

(4) 배(杯)와 배(盃)

‘배(杯)’는 ‘배(盃)’와 같은 글자이다.¹⁴⁷⁾

‘배(杯 = 盃)’는 술잔처럼 뚜껑이 없는 작은 찻잔으로 여기에 다탕을 마셨다.
조선초부터 쓰여온 ‘다배(茶杯)’를 신위는 ‘명배(茗盃)’라고도 하였다.¹⁴⁸⁾

다음은 <謝人惠茶盃 (찻잔을 준 사람에게 감사하며)> 라는 제목의 시 전문이
다. 제목에 ‘배(盃)’가 들어 있고, 그 모양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謝人惠茶盃>

新樣燒瓷瑩綠沈 새로운 모양의 자기는 짙은 녹색이 영롱한데
溪山縮本傲雲林 잔에 그려진 계곡이 운림의 풍경과 비슷하네
酒醒又見纖纖捧 술이 깨어 다시 조심스레 들고 보니
一樹梅花側帽吟¹⁴⁹⁾ 한 그루 매화가 모자를 비껴 쓴 듯 기울어져 있네.

신위가 찻잔을 선물 받고 난 후 고맙고 기뻐서 쓴 시이다.

본문에서는 ‘배(盃)’를 구운자기 즉 소자(燒瓷)라고 하였고, 풍경화가 그려져 있
었으며 매화나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위의 글에서 ‘배(杯)’가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 “選石安詩硯 (바위를 골라 시
쓸 벼루를 놓고) / 甌泉注茗杯 (샘물을 떠서 찻잔에 붓네)”¹⁵⁰⁾ 이다.

146) 申緯, 「警修堂全藁」 58권, p.1402. <雜題>.

147) 김철환, 전개서, p.1409.

148) 정영신, 「한국 茶文化」, p.228.

149) 申緯 著, 孫八洲 編, 「申緯全集」 第一集, p.6. <謝人惠茶盃>.

150) 申緯, 「警修堂全藁」 5권, p.128. <閑步亭>.

3) 화덕

조선시대에는 차를 끓일 때 불을 담거나 피우는 것으로 ‘다로(茶爐)’를 썼다. ‘다로(茶爐)’는 바람구멍이 있어 나무나 숯을 피우기에 편리한 풍로가 있고, 실내에서 뜨거운 것을 막기 위해 나무나 대로 화롯가를 둘러싼 목로(木爐)나 죽로(竹爐)를 흔히 썼으며 철, 놋쇠, 돌화로와 질화로도 있었다.¹⁵¹⁾

신위의 시에는 ‘다로(茶爐)’뿐만 아니라 ‘다로(茶爐)’도 등장하는 시가 여러 편 있다.

‘다로(茶爐)’가 나오는 시를 보면, “席地寒衾卒伍同 (자리 간 바닥과 찬 이불은 병영과 똑 같은데) / 茶爐幸有火通紅 (다행히 다로가 있어 불빛이 붉네)”¹⁵²⁾ 이다.

‘로(爐)’는 옥편에 향아리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신위의 시에서는 ‘로(爐)’를 화로로 썼음을 추정 할 수 있다. 아마도 향아리 모양의 화로가 아닌가 생각된다.

‘로(爐)’가 들어있는 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君死家人檢箱篋 그대가 죽고 가족들이 상자를 살펴보니
猶殘宣德蠟茶爐¹⁵³⁾ 오직 선덕 시대에 만든 차 화로가 남아 있네

‘다로(茶爐)’가 들어 있는 다른 내용을 보면 “茶爐有火否 (다로에는 불이 있는지) / 唧唧¹⁵⁴⁾銅瓶泣 (치익치익 구리병이 울어대네)”¹⁵⁵⁾ 와 “山房喉渴對茶爐 (산방에서 목이 말라 다로를 대하니) / 惆悵崧陽酒百壺 (송양주 백병 생각에 쓸쓸해

151) 정영선, 「한국의 茶文化」, p.232.

152) 申緯, 「警修堂全藁」 28권, p.723. <獄中煎茶(其二)>.

153) 선덕 황제 때 만들어진 매우 아름다운 향로로 선덕은 명나라 선종(宣宗) 황제의 연호(年號)이다.

154) 물이 끓을 때 칙칙하고 나는 소리이다.

155) 申緯, 「警修堂全藁」 53권, p.1281. <秋懷>.

지네)”¹⁵⁶ 이다. ‘로(鑪)’가 화로임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시를 보면, “打餅隣翁欵枕聽 (이웃집 노인은 베개에 기대어 떡치는 소리를 듣다가) / 呼茶童子對鑪眠 (차 끓이는 동자를 부르니 화로 옆에서 졸고 있네)”¹⁵⁷ 이다.

4) 기타 다구(茶具)

신위의 글에 나오는 다른 다구로는 ‘다반(茶盤)’과 ‘표(瓢)’가 있다.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상아다반(象牙茶盤)>이라는 제목의 시 전문(全文)이다.

<象牙茶盤>

荷卷蔭郭索 말린 연꽃잎 그늘 아래엔 게가 있고
 稻臥黏蜻蜓 늘어진 벼이삭엔 잠자리 붙어 있네
 纔是磊落人 그리고 이제 뜻이 큰 선비가
 方讀爾雅經¹⁵⁸ 지금 한창 이아경을 읽는 중이네

‘다반(茶盤)’은 손님께 차나 다과를 담아 나를 때 쓰는 받침인데 상아로 만들어졌으므로 작은 잔 받침이 아닐까 생각되며,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다반에 연꽃, 게, 벼이삭, 잠자리 등 아름다운 그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瓢)’는 박으로 만든 그릇을 뜻한다.¹⁵⁹ ‘표(瓢)’의 내용이 있는 시를 보면, “小瓢分銚落佩響 (박으로 만든 작은 바가지로 물을 떠서 술에 부으니 패옥이 떨어져 울리는 듯한 소리가 나고) / 活火發陽旋沫輕 (불이 활활 타오르자 술 주변에 거품이 가볍게 일어난다.)”¹⁶⁰ 이다. 이 내용에서 ‘소표(小瓢)’는 박으로 만든

156) 申緯, 「警修堂全藁」 66권, p.1630. <余嗜飲崧陽紅穀桂露之和糖屑者 非此不飲 故崧陽人士必携而繼之 近因士之稀潤 止酒 悵然題此>.

157) 申緯 著, 孫八洲 編, 「申緯全集」 第四集, p.1982. <壬寅 除夕>.

158) 申緯, 「警修堂全藁」 17권, p.465. <象牙茶盤>.

159) 김철환, 진계서, p.1347.

160) 申緯, 「警修堂全藁」 15권, p.440. <汲江煎茶 用坡公試院煎茶韻>.

작은 그릇 즉 표주박을 나타내며 차물을 떠서 탕관에 붓는 용도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4. 팡다법(烹茶法)

1) 차 끓이기의 용어

신위의 시에 차를 끓인다는 용어로는 ‘전다(煎茶)’, ‘점다(點茶)’, ‘팡다(烹茶)’, ‘약다(瀹茶)’가 나오고 그외에 ‘명사(茗事)’, ‘투탕(投湯)’ 등도 있다.

‘전다(煎茶)’와 ‘점다(點茶)’, ‘팡다(烹茶)’는 모두 차를 끓인다는 뜻이다. <汲江煎茶 用坡公¹⁶¹⁾試院煎茶韻 (강물을 길어 차를 끓이며 동파의 ‘시험장에서 차를 마시며’ 라는 시의 운을 따라 짓다.)> 라는 제목의 시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전다(煎茶)’와 ‘점다(點茶)’의 두 용어가 함께 들어 있다.

.....
君不見東坡定論水煎茶不煎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동파가 논하기를 물을 끓이는 것이지 차를 끓이는 것이 아니며
.....
點茶在手愁失眉 ¹⁶²⁾	점다하는 솜씨에 따라 차맛이 너무 진해질까 걱 정되네
.....

위의 글에서 전다(煎茶)와 점다(點茶)는 같은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161) 송나라 소식(蘇軾)을 가리킨다. 그의 호(號)가 동파(東坡)이므로 파공이라고도 한다. 문장과 시에 능해서 아버지 소순(蘇洵)과 아우 소철(蘇轍)과 함께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에 속한다.

162) 申緯, 상계서, p.440. <汲江煎茶 用坡公試院煎茶韻>.

‘전다(煎茶)’가 들어있는 또 다른 시를 보면 “飼鶴煎茶完事業 (학을 먹이고 차를 끓이면 할 일은 다했으니) / 紫藤花下打青錢 (붉은 등나무 꽃 아래에서 푸른 구리 동전이나 치고 놀림)”¹⁶³⁾ 이다.

‘점다(點茶)’의 용어가 들어있는 다른 시는, “剎來金碧點茶馨 (옥 같은 샘물을 길어다 차를 끓이니 향기가 짙어) / 湯品添修陸羽經 (탕품은 육우의 다경에 추가 할만 하네)”¹⁶⁴⁾ 이다.

‘팽다(烹茶)’는 탕관에 물이 끓으면 잎차나 떡차를 넣고 잠시 더 끓인 후 마시는 방법으로 점다(點茶)나 전다(煎茶)와 비슷하게 쓰였다. ‘팽다(烹茶)’가 들어 있는 시를 보면, “茶山傳法淡烹茶 (다산이 전한 방법대로 차를 맑게 끓이네) / 睥睨南朝有幾家 (남조를 생각해 보니 몇 나라나 있었던가?)”¹⁶⁵⁾ 이다. 그리고 <園林葉 (동산 숲의 낙엽)> 이라는 제목의 시에, “燒葉清寒於雪水 (낙엽을 태우는 것이 눈물을 끓이는 것 만큼 청빈하니) / 烹茶更媿黨家兒 (차를 끓이며 또 당씨네 아이에게 부끄럽네)”¹⁶⁶⁾ 라고 했다. ‘팽다(烹茶)’가 들어 있는 또 다른 시를 보면, “烹茶掃紅葉 (차를 끓이며 붉은 단풍을 쓸고) / 憇雲傾綠醕 (구름을 바라보며 맑은 술을 들이키네)”¹⁶⁷⁾ 와 “清於月白初三夜 / 淡似烹茶第二泉”¹⁶⁸⁾ 이다.

신위는 그의 시에서 ‘약명(淪茗)’도 썼는데 ‘약명(淪茗)’이 들어 있는 시를 보면, “嗜古揮金輕產業 (옛것을 좋아해 물 쓰듯 돈들이며 집안 살림 소홀히 했고) / 焚香淪茗送平生 (향을 피우고 차를 끓이는 일에 평생을 보냈네)”¹⁶⁹⁾ 의 내용과 “茗

163) 申緯, 「警修堂全藁」 29권, p.743. <贈童>.

164) 신위 저, 권경렬 역, 전개서, p.191. <冷泉亭>.

165) 申緯, 「警修堂全藁」 38권, p.963. <澤微副使歸示錢金粟學士林近體雜詩 有論詩絕句 又有題余懷人詩後二絕句 故各用其意 以俟冬使附寄金粟爲謝>.

166) 申緯, 「警修堂全藁」 60권, p.1462. <園林葉>.

167) 申緯, 「警修堂全藁」 14권, p.390. <潘家蔣>.

168) 申緯, 「警修堂全藁」 27권, p.694. <原韻>.

169) 申緯, 「警修堂全藁」 76권, p.1569. <肅命之翌日 訪故雨蕉篠飲二侍郎宅 始爲寢門之哭 有作五首>.

葉梅花同一瀹 (차잎과 매화를 함께 넣어 우리니) / 誰能香味辨中邊 (누가 향과 맛 구별할 수 있을까)¹⁷⁰⁾ 이다.

위의 용어들을 쓴 횟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차 끓이기의 용어

용어	烹茶	點茶	煎茶	投湯	瀹茶
횟수	4	2	2	1	2

따라서 신위는 차를 끓인다는 용어를 쓸 때 ‘팽다(烹茶)’, ‘점다(點茶)’, ‘전다(煎茶)’, ‘약다(瀹茶)’, ‘투탕(投湯)’ 등을 고루 다양하게 썼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중 ‘팽다(烹茶)’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

2) 차의 보관법

초의가 보내온 차가 너무 여러 이전에 갖고 있던 차와 섞어서 보관했다가 새 차와 묵은차가 서로 배어들기를 기다린 후에 사용했다는 시가 있다. <艸衣茶味太嫩 故與舊所藏壑源茶和勻 同貯一籠中 更俟陳新相入而用之也又成一詩 將以示艸衣也 (초의가 준 차맛이 너무 여려서 이전에 소장하고 있던 학원차와 섞어서 함께 한 상자 속에 넣어 두었다. 후에 묵은 것과 새 것이 서로 배어들기를 기다렸다가 썼다. 또 시 한편을 지어 초의에게 주려 한다.)> 라는 제목의 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評品得聞於鴻漸 품평은 홍점에게서 들을만 하리니

170) 申緯, 「警修堂全藁」 77권, p.1862. <啜梅>.

이에 신위도 다산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4) 해안차(蟹眼茶)와 송풍(松風)의 중시

신위는 그의 시에서 차를 끓일 때 물이 끓은 소리를 솔바람 소리에 비유한다든지, 차가 끓을 때 생기는 차의 거품이 이는 모양을 계의 눈에서 나는 거품에 비유해서 묘사했다.

‘송풍탕(松風湯)’은 찻물이 끓을 때 솔바람 소리가 난다고 해서 쓰인 말이다.

신위는 그의 시에서 송풍탕을 네 번이나 표현하고 있다.

다음의 시는 ‘송풍(松風)’의 표현을 시에서 그대로 나타내었다.

.....

吹火向石銚 돌냄비를 향해 불을 붙어 대니
 松風洶掀簸¹⁷⁶⁾ 솔바람 소리를 내며 물이 부글부글 끓네

.....

위의 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송풍(松風)’은 다시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찻물이 한창 끓고 있는 상태를 솔바람 소리가 난다고 해서 표현한 것이다.¹⁷⁷⁾

‘송풍탕(松風湯)’이 나오는 또 다른 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戀情刊落略無痕 속세의 정은 깎아낸 듯 조금의 흔적도 없는데
 未足平生茗事存 차 마시는 일은 평생토록 계속되네
 香積飯過淸佛座 향적반 먹은 뒤에 불좌를 깨끗이 하고
 松風湯熱淨詩魂¹⁷⁸⁾ 송풍탕 끓여서 시혼을 맑게 하네

175) 정영선, 「한국의 茶文化」, p.212.

176) 申緯, 「警修堂全藁」 4권, p.77. <早春 煮雪 點茶 偶讀東坡病中大雪答趙薦詩 遂次其韻>.

177) 신위 저, 권경달 역, 전개서, pp.184-185.

178) 申緯, 「警修堂全藁」 72권, p.1769. <艸衣茶味太嫩 故與舊所藏壑源茶和勻 同貯一籠中>

위의 시에서는 ‘송풍탕(松風湯)’이라고 했다.

신위는 다른 시에서도 “耳根暫借松風響 (귀로 잠깐 솔바람 소리를 듣다 보니) / 咫尺神遊澗壑中 (정신은 가까운 계곡에서 노니는 듯)¹⁷⁹⁾ 라든가 “勞形案牘欠伸須 (몸을 피곤하게 하는 공문서엔 하품이 절로 나는데) / 已過松風第二湯 (솔바람은 이미 지나 두 번째로 끓네.)”¹⁸⁰⁾ 라고 표현했다.

‘해안차(蟹眼茶)’는 차가 끓을 때 생기는 차의 거품을 계의 눈에서 나는 거품에 비유한 것인데 신위는 “詩前妓捧鸞哥硯 (시 짓기 전에 기생이 앵무새 벼루를 준비하고) / 酒後童烹蟹眼茶 (술 마신 후엔 동자가 해안차를 끓이네)”¹⁸¹⁾ 라고 표현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신위는 차를 끓일 때 물이 끓은 소리를 솔바람 소리에 비유한다든지, 차가 끓을 때 생기는 차의 거품이 이는 모양을 계의 눈에서 나오는 거품에 비유해서 묘사한 것을 보면 그가 차를 끓이는 전 과정에서 어느 한 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정성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품다(品茶)

‘품다(品茶)’는 차(茶)를 달여서 시음하여 차의 품질이 좋고 나쁨을 품평하는 것을 말한다. 더 나아가 ‘품다(品茶)’란 차 겨루기의 한 형태인 것이다.¹⁸²⁾

『다록(茶錄)』의 상·하 두 편중 상편에 보면 차의 분별에서 차의 색, 향기, 맛

更俟陳新相入而用之也 又成一詩 將以示艸衣也>.

179) 申緯, 『警修堂全藁』 28권, p.723. <獄中煎茶 (其二)>.

180) 김명배, 『한국의 다시 감상』, p.70.

181) 申緯 著, 孫八洲 編, 전계서, pp.157-158. <重陽日>.

182) 김명배, 『茶道學論攷』, pp.400-401.

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차 맛은 달콤한 것을 존중한다고 했고, 빛깔은 희어야 하는데 청백(淸白)색이 황백(黃白)색보다 더 좋다고 하였다. 그리고 향은 차만이 가지는 독특한 향기가 있어야 하므로 다른 향초(香草)나 과일들을 차에 첨가하면 그 차의 참맛을 앗아간다¹⁸³⁾ 고 되어있다.

신위의 시에 차의 맛과 색에 관한 것과 차의 향기를 겨루었다는 내용이 있으며, 차의 맛과 향 그리고 색에 관련된 용어들이 등장하는 시가 상당 수 있다.

신위는 그의 시에서 차의 맛을 구체적으로 달고 쓰다고 하였는데 그 내용을 ‘다미회침(茶味回恬)’과 ‘고명(苦茗)’으로 표현했다.

차 맛이 달콤함을 노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飯潔醪香蘇病肺 정결한 밥과 향기로운 술은 병든 속을 씻기고
 茶甘粥白供詩禪¹⁸⁴⁾ 달콤한 차와 흰 죽은 시적인 참선을 도우네

신위는 또 다른 시에서 차의 맛이 달콤함을 “茶味回恬小睡成 (차맛이 달콤하게 감돌아 졸음이 오는데)”¹⁸⁵⁾ 라고 묘사했다.

또 차의 쓴맛을 표현한 내용을 보면 “苦茗嚴時宜砭俗 (쓴 차는 속인을 깨우치고)”¹⁸⁶⁾ 이다. 이 내용은 초의 스님이 완호대사를 위해 삼여탑을 세우면서 신위에게 서문 부탁과 함께 떡차를 보내왔는데 그 차맛을 ‘고명(苦茗)’ 즉 쓴맛으로 나타내었다. 신위는 차의 맛을 대체로 단맛을 즐겼고 때로 쓴맛도 있었음을 표현했다.

183) 박정도, 「중국차의 향기」 (서울: 박이정, 2001), pp.270-271.

184) 申緯, 「警修堂全藁」 74권, p.1798. <東井水(其一)>.

185) 申緯, 「警修堂全藁」 47권, p.1152. <村鳩>.

186) 김명배, 「한국의 다시 감상」, p.71.

신위는 차의 향기도 중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昨歲宮商證樂章 작년에 오음을 악장에서 시험할 때
留君飯罷鬪茶香¹⁸⁷⁾ 그대를 잡아 두고 식사 후엔 차 향기를 겨루었지
.....

위의 내용에서 ‘증악장(證樂章)’은 1828년에 신위가 강화유수가 되었을 때 문조로부터 당시절구(唐詩絕句)를 뽑아 올리라는 명을 받고 작업하던 일을 말한다.¹⁸⁸⁾ 그는 다우(茶友)였던 권영좌와 식사 후에 차 향기를 겨루었다고 했다.

‘투다(鬪茶)’는 명전 이라고도 하는데 차의 맛을 비교하여 평하고 겨루는 대회이다. 위의 시에서 ‘투다향(鬪茶香)’이라고 한 것은 차의 맛이 아니라 차의 향기를 겨루었다는 것이다.

다른 시에서 ‘다향(茶香)’을 표현한 내용을 보면, “酒熟茶香花月夕 (술익고 차 향기로운 꽃피는 달밤에)”¹⁸⁹⁾ 와 “茗香詩韻動關情 (차의 향기와 시의 운치는 마음을 움직이니)”¹⁹⁰⁾ 이다.

그리고 차 향기가 흩어져 퍼지는 모양을 ‘막막(冥冥)’으로 표현하기도 했다.¹⁹¹⁾ 향과 색을 동시에 중시해서 나타낸 시는 다음과 같다.

.....
投湯怕湯老 끓는 물을 부을 때 너무 익을까 염려되지만
小遲香色挫¹⁹²⁾ 조금 늦으면 향과 색이 나빠진다네
.....

187) 申緯, 『警修堂全藁』 42권, p.1055. <哭權米山進士永佐絕句 (其二)>.

188) 신위 저, 권경렬 역, 전개서, p.118.

189) 申緯, 『警修堂全藁』 82권, p.1961. <送別徐稚嘉>.

190) 申緯 著, 孫八洲 編, 『申緯全集』 第三集, p.1402. <雜題>.

191) 申緯, 『警修堂全藁』 9권, p.230. <眠>의 제목에 “春生四體休休煖 茶熟頭湯漠漠香 一字不看中有味 滿窓松影枕書囊.”라고 했다.

192) 申緯, 『警修堂全藁』 4권, p.77. <早春 煮雪 點茶 偶讀東坡病中大雪答趙薦詩 遂次其韻>.

위 글은 말차를 접다한 내용이다. 찻가루에 뜨거운 탕수를 넣는 시기에 따라 색과 향이 변하므로 적절한 시기에 물을 부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시이다. 또 차의 색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炯炯光透紙 (밝은 빛이 곁에 싼 종이를 뚫고 나오고) / 瑟瑟塵出磨 (푸른색을 띤 가루차가 소리내며 맷돌에서 나오네.)”¹⁹³⁾ 이다. 이 내용에서 ‘슬슬(瑟瑟)’은 푸른색을 형용하는 말로 차의 색깔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시이다.

신위는 다른 시에서 차의 향기와 맛을 같이 표현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茗葉梅化同一瀾 (찻잎과 매화를 함께 넣어 우리니) / 誰能香味辨中邊 (누가 향기와 맛을 가려낼 수 있으리오)”¹⁹⁴⁾ 이며, 색과 맛과 향이 모두 들어 있는 내용을 보면, “不如玉川七椀色味香絕時 (옥천자의 일곱잔 차가 색과 맛과 향이 절정일 때 만은 못하리라)”¹⁹⁵⁾ 고 하여 차(茶)의 색미향(色味香)을 모두 말하였다. 장의순의 『동다송』에도 차의 색미향(色味香)에 관한 내용이 있다.¹⁹⁶⁾

위와 같이 신위는 그의 시에서 차를 마실 때 차의 맛과 향기와 색도 소홀히 하지 않고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다.

6. 물과 빨감

‘차는 물의 신(神)이고 물은 차의 몸(體)’이라고 했듯이 아무리 좋은 차라도 물이 나쁘면 제 맛을 낼 수 없다.¹⁹⁷⁾

193) 신위 저, 권경렬 역, 전개서, pp.185-186. 송나라 임포(林浦)의 <烹北苑茶有懷 (북원차를 끓이며 느낌을 적다.)>라는 제목의 시에 “石碾輕飛瑟瑟塵 (맷돌에서 푸른 가루가 날리네.)”라는 구가 있다.

194) 申緯, 「警修堂全藁」 77권, p.1862. <啜梅>.

195) 申緯, 「警修堂全藁」 15권, p.440. <汲江煎茶 用坡公試阮煎茶韻>.

196) 장의순 저, 임종욱 역, 동다송 편, 「초의선집」 (서울: 동문선, 1993), p.344.

197) 장의순 저, 임종욱 역, 전개서, p.353.

『서역기(西域記)』에 물의 선택기준이 되는 여덟 가지 덕은, 맑고(淸)·가볍고(輕)·차고(冷)·연하고(軟)·맛있고(美)·냄새가 없고(不臭)·마실 때 알맞고(調適)·마신 뒤에 탈이 없는 것(無患)이라고 했다.¹⁹⁸⁾

신위의 시에서도 차를 끓이는데 물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차를 끓일 때 어떠한 물을 썼는지 잘 나타나 있다.

1) 우물물과 샘물

‘우물물’은 대부분 수맥을 알 수 없고 주변에서 스며서 고이는 물로서 가물면 마르기 쉽고 건수(乾水)가 많아 비가 오면 수량이 늘고 개이면 줄어드는 물이다. 우물물은 자주 퍼내어 깨끗이 해야 좋다.¹⁹⁹⁾

‘샘물’은 땅속에서 솟아나는 물로 완만하게 바위사이를 흘러나오는 유천(乳泉)이 제일 좋다.²⁰⁰⁾ 신위는 ‘샘물’과 관련된 여러 편의 시를 썼는데, ‘방두천’, ‘한보정’, ‘유천’, ‘석간천’, ‘냉천정’ 등 5편이다.

신위는 좋은 물을 ‘유천(乳泉)’이라 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乳泉澄眼眼 (유천은 눈을 맑게 해주고) / 茶烟催短日 (차 연기 속에 겨울이 음을 재촉하네)”²⁰¹⁾이다. 좋은 샘물은 젓과 같이 맛이 있다하여 ‘유천(乳泉)’이라고 했다.

『동다송』 11절에도 ‘유천(乳泉)’과 관련된 시가 있다.²⁰²⁾

시 제목에 ‘방두천(方斗泉)’이라는 샘 이름이 나오는 것으로, <伊川人贈石銚 汲方斗泉 煮龍脊茶餅 有作 (이천에 사는 사람이 돌냄비를 주었다. 방두천의 물을 길어 용척차 덩어리를 끓이며 짓는다.)> 라고 한 글이 있다.²⁰³⁾

198) 김명배, 「中國의 茶道」, pp.129-130.

199) 석용운, 전계서, pp.138-139.

200) 상계서, p.137.

201) 申緯, 「警修堂全藁」 26권, p.662. <次韻固城令玉泉寺>.

202) 장의순 저, 정영선 역, 「동다송」, pp.54-57.

203) 신위 저, 권경렬 역, 전계서, p.77. 원주(原注)에 “方斗泉在府衙之南南山下 爲邑中第一泉 後余改名葫蘆泉 (방두천은 관아의 남쪽 남산 아래에 있는데 읍중에서 제일로 치는 샘이다. 후에 내가 그 이름을 호로천이라고 바꿨다.)” 라고 되어 있다.

신위는 또 정자 이름을 차 끓이는 샘물과 연관해서 지었는데 <냉천정(冷泉井)>이라는 제목의 시에 “灑來金碧點茶馨 (반짝이는 푸른 물을 길어다 차를 끓이니 향기가 짙고) / 冷泉亭是醴泉亭 (냉천정이 바로 예천정의 경우와 같네)”²⁰⁴라고 했다. 정자 이름을 ‘냉천정(冷泉亭)’으로 지은 이유가 바로 맑고 깨끗한 샘물로 차를 끓여 마시고 술을 걸러 마실 수 있으므로 샘물을 중시하여 붙인 이름임을 밝히고 있다.²⁰⁵

신위가 가마를 물리치고 한가로이 거닌다는 뜻으로 노래한 <한보정(閑步亭)>이라는 제목의 시에서 보면 신위는 그 물로 차를 끓여 마셨음을 알 수 있다.

當車緩步處 수레를 대신해 천천히 걸어간 곳에
 如笠小亭開 샷갓 같은 조그만 정자 하나 있네
 選石安詩硯 돌을 골라 시 쓰는 벼루를 놓게 하고
 灑泉注茗杯²⁰⁶ 샘물 길어 차를 끓이도록 했다.

.....

샷갓과 같은 조그만 정자를 그 곳에 세우고 샘물을 길어 차를 달이는 곳으로 삼아 정자 이름을 ‘한보정(閑步亭)’이라고 하고서 풍류를 즐겼던 것이다. 맑고 시원한 샘물을 길어 차를 달이던 조그만 정자가 있는 풍경임을 알 수 있는 시다.

자하가 쓴 ‘한보정(閑步亭)’의 원시 서문에 샘이 좋은 곳에 정자를 지은 내용이 있다. 즉 “관아 서쪽 작은 문을 통해 독길을 따라 가면 가마를 버리고 한가로이 거닐만한 곳이 있는데 바로 남산의 북쪽이다. 그 곳 바위 밑에는 샘이 솟는데 고을 중에서 제일이며 오래 마시면 온갖 병을 치료 할 수 있다. 이에 옆에 작은 정자를 지어 샘물로 차를 달이는 곳을 삼고는 예천명(醴泉銘)의 ‘서쪽 성에서 한가

204) 신위 저, 권경렬 역, 전개서, pp.191-192. <冷泉亭>

205) 육선자, 「한국 음다공간의 역사적 고찰」(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2002), p.71.

206) 김상현, 「한국의 茶詩」(서울: 태평양, 1986), p.133.

로이 거닌다'라는 말을 취하여 그 정자의 이름으로 삼는다.”²⁰⁷⁾ 고 하여 정자에
는 물을 중요시하였음을 보여 준다.

자하는 '석간천(石間泉)'도 언급하였다. '석간천(石間泉)'은 산속 바위틈 사이의
샘물을 말한다. 시 제목이 <汲南山石間泉 煎茶 茶味迥勝於井水 (남산의 바위 사
이에서 나는 샘물을 길어다 차를 끓이니, 차 맛이 우물물일 때 보다 훨씬 좋았
다.)>고 하여 차물로서의 물맛을 세밀히 품평하였다. 그 내용의 일부를 보면 다
음과 같다.

雲竇分泉竹裏廚 구름 서린 동굴에 샘물을 끌어 낸 대나무 숲 부엌에선
松聲入夜起風爐²⁰⁸⁾ 밤이 되자 솔바람 소리가 풍로에서 일어나네
.....

라고 하였다. '분천(分泉)'은 샘물을 길어온다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대나무 대롱
을 통해 물을 끌어다 쓰는 것을 말한다.

다음의 시는 신위가 순조때 주청사(奏請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청나라에 갔
을 때 지은 시로 만주땅에서 옛 우물물에 차 다리기를 한 것을 읊은 시이다.

<東井水 其一>
肅愼古墟東井水 숙신 옛 성터의 동쪽 샘물은
丹砂素礫映澄然 단사의 본마당이 뛰어나 맑게 비치네
卽承恩暇遊千里 은혜로 내린 휴가 천리를 노니는데
來試吾邦第一泉 우리 나라 제일 가는 샘에 와서 시험하네.
飯潔醪香積病肺 깨끗한 밥 향긋한 술은 병든 폐를 소생시키고

207) 申緯, 「警修堂全藁」 5권, p.128. <閑步亭> "由衙西小來門 取于田間水邊 可以却輿閑步
者 卽南山之陰 而巖下沕泉 爲邑中第一水 久飲可躅百病 乃作小亭于傍 以爲把泉注茗之
俶取醴泉銘閑步西城之語 諺其亭云."

208) 申緯, 「警修堂全藁」 30권, p.758. <汲南山石間泉 煎茶 茶味迥勝於水>.

茶甘粥白供詩禪 달콤한 차 흰죽은 시와 선에 이바지하네
 全勝藥物扶衰氣 쇠약한 기운을 돕기에는 모두 뛰어난 약물이니
 一理要參北坎天²⁰⁹⁾ 북쪽의 자연을 헤아리면 하나의 도리가 필요하네.

앞의 시 첫 구절인 “肅愼古墟東井水 / 丹砂素礫映澄然”이라고 하는 구절은 만주땅의 옛우물물의 본바탕이 뛰어나 차다리기에 가장 알맞다는 것을 표현한 구절이고, “卽承恩暇遊千里 / 來試吾邦第一泉”은 신위가 순조 12년 7월에 서장관으로 있으면서 휴가를 얻어 만주지방을 방문한 것을 일컬음이며 이때 만주의 제일가는 샘에 와서 물을 시험한다는 것을 읊은 구절이다.²¹⁰⁾

그 다음 구절과 마지막 구절은 차가 몸과 마음에 미치는 큰 영향을 읊은 것이다. 즉, 차는 쇠약한 기운을 돕는 데에도 뛰어난 약효를 낸다는 것을 읊조리고 있다.²¹¹⁾

다인들은 차를 끓이는 물을 차(茶) 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실 차맛의 반은 물에 달린 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2) 강물

조선시대에는 궁중에서 차를 끓일 때 반드시 한강의 강심수를 길어 썼다고 하여 다게에도 그러한 내용이 있다.²¹²⁾

신위의 시에도 강물로 차를 끓였다는 내용이 있다. 신위는 시의 제목에서, <汲江煎茶 用坡公試院煎茶韻 (강물을 길어 차를 끓이며 동파의 ‘시험장에서 차를 마

209) 정상구, 「名茶詩鑑評」 (부산: 세종 문화사, 1995), pp.328-329. <東井水 其二> “世間一切厭紛華 七十稀年念念差 茗事還知堪送老 天涯不計欲移家 名泉此是康王谷 頂品宜烹陸羽茶 青海城東田野畔 藍輿路熟趁晨鴉.”

210) 정상구, 전게서, pp.329-330.

211) 상게서, p.330.

212) 정영선, 「한국 茶文化」, p.197. 다게란 불가에서 차를 올린 후 부르는 노래로서 보통 4귀절이다.

시며'라는 시의 운을 따라 짓다.)> 라고 하였고 그 내용의 일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
八江 ²¹³ 水品無第二	한강물의 품질은 못한 데가 없으니
千里遠送歸海意	천리 먼 곳에도 보내 주고 싶은 심정이네
.....
我今吞江以救饑	나는 이제 강물을 마셔 배고픔을 잊으려하니
點茶在手愁失眉	점다하는 솜씨에 따라 차맛이 너무 진해질까 걱정되네
.....

차를 끓이는데 있어 물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또 옛 선인들이 제대로 된 차맛을 내기 위해 얼마나 세심한 주의를 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강물을 떠다가 차를 끓여 마셨다는 또 다른 내용은 “冰底春江剪細紋 (얼음 아래 봄 강물을 떠다가) / 活湯茶熟一甌分 (차를 끓여 우려내어 한잔씩 나누어 마시네)”²¹⁴ 이다.

위의 시는 서성에서 추사와 신위가 당직을 설 때 강물을 떠다가 차를 끓여 마셨다는 내용이다.

3) 눈 녹인 물(雪水)

공기가 오염되지 않은 옛날에는 겨울에 눈 녹인 물(雪水)로 차를 달인 경우가 많았다. 고려의 진각국사는 쟁반에 눈을 산 모양으로 쌓아놓고 샘처럼 구멍을 파

213) 팔강(八江)은 서울의 뚝섬, 서빙고, 신촌, 용산, 마포, 토정, 서강, 망월정 주변의 한강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214) 권경렬, “조선 시대 문인들의 다시문”, 『茶文化 研究誌』 (제5권, 한국 다 문화 연구소, 1996), p.35.

서 그 가운데 녹은 물을 떠서 작설차를 끓여 마시었고, 허균은 눈 녹인 물에 차를 끓이는 것이 특별히 운치 있는 일이라고 하였으며, 심동귀(沈東龜)로 눈을 녹인 물에 차를 달였다.²¹⁵⁾

신위는 <早春 煮雪 點茶 偶讀東坡病中大雪答趙薦詩 遂次其韻 (이른 봄에 눈 녹인 물을 끓여 차를 끓이다가 우연히 동파가 병중에 큰 눈이 내려 출입하지 못하고 조천에게 화답한 시를 읽고 마침내 그 운을 따라 짓는다.)>라는 제목의 시에서 “雪水味澹泊 (눈 녹인 물은 맛이 담박하여) / 鹽梅謝調和 (절인 매실로 간을 맞추는 필요가 없네)”²¹⁶⁾ 라고 하였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신위는 눈 녹인 물은 맛이 좋아 따로 간을 맞추는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신위는 시를 통해 차 끓이는 물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4) 뭍감

자하는 그의 시에서 차를 끓일 때 뭍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獸炭却嫌侈	짐승의 뼈를 태운 숯은 도리어 사치스러운 것 같아
僮指拾樵墮	동자는 떨어진 뭍감을 주어 모으네
吹火向石銚	돌냄비를 향해 불을 붙어대니
松風淘掀簾 ²¹⁷⁾	솔바람 소리를 내며 물이 부글부글 끓네
.....

215) 정영선, “눈(雪)내린 날의 차 자리”, 「설록차, 1·2월호」 (서울: 태평양 건강사업본부, 2004), p.33.

216) 申緯, 「警修堂全藁」 15권, p.440. <汲江煎茶用坡公試院煎茶韻>.

217) 정상구, 진계서, pp.328-329. <東井水 其二>, “世間一切厭紛華 七十稀年念念差 茗事還知堪送老 天涯不計欲移家 名泉此是康王谷 頂品宜烹陸羽茶 青海城東田野畔 藍輿路熟趁晨鴉.”

위의 시에서 '송탄(獸炭)'은 네 발이 달린 전신에 털이 있는 짐승의 뼈를 태운 숯을 말한다.²¹⁸⁾ '습초타(拾樵墮)'에서 '습(拾)'은 사전에 주어 모으다, '초(樵)'는 땔나무, '타(墮)'는 떨어져 있는 뜻으로 풀이되어 있다. 그러므로 '습초타(拾樵墮)'를 그대로 풀이하면 떨어져 있는 땔감을 주어 모은다 이며, 시 내용에서는 아니지만 신위가 살았던 조선 후기에는 '송탄(獸炭)'을 이용해 차를 끓여 마셨고 귀중한 땔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신위의 시에는 또 '낙엽을 태워 차를 끓였다'는 시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燒葉清寒於雪水 (낙엽을 태워 차를 끓이는 것은 눈을 녹여 차를 끓이는 일만큼 청빈하니)”²¹⁹⁾ 라고 하여 숯이 아닌 낙엽을 태워 차를 끓여 마시는 것은 눈을 녹여 차를 끓여 마신 것 만큼이나 청빈한 생활임을 암시하고 있다.

낙엽을 태워 차를 끓였다는 또 다른 내용을 보면, “淡茗自燒紅葉煮 (담백한 차를 스스로 낙엽을 태워 끓여서) / 夕陽變態一甌傾 (변해가는 석양 속에서 한사발 들이키네)”²²⁰⁾ 이다.

7. 팡다(烹茶)의 주체(主體)

정 3품의 대사간과 호조 판서 등을 지낸 자하는 혼자 차를 끓여 마신 경우가 많지만, 차를 끓여 주는 동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시도 다수 있다.

1) 손수 차 끓이기

자하가 혼자 차를 끓여 마셨음을 알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218) 김철환, 전계서, p.1312.

219) 申緯, 「警修堂全藁」 60권, p.1462. <園林葉>.

220) 申緯, 「警修堂全藁」 43권, p.1069. <聖住菴>.

淡茗自燒紅葉煮 맑은 차를 스스로 낙엽을 태워 끓여서
夕陽變態一甌傾²²¹⁾ 변해 가는 석양 속에서 한 잔을 마시네

위의 시는 한 암자로 스님을 찾아갔지만 스님은 이미 그 암자를 떠나고 혼자 차를 끓여 마시면서 쓴 시이다. 스스로 낙엽을 태워 차를 한잔 마신다는 시구를 통해 혼자 차를 끓여 마셨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는 다른 시에서 “烏帽籠頭自注茶 (검은 두건으로 머리를 싸 매고 스스로 차를 달여 마시네)”²²²⁾ 라고 했고 또 “夢回我與茶鑷嘴 (꿈에서 깨 보니 나와 차솔이) / 一樣綿綿氣息存 (한결같이 면면히 숨쉬며 살아 있네)”²²³⁾ 라고 하였는데 이 시는 감옥에서 지은 것으로 옥중에서 혼자 차를 끓여 마셨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신위는 혼자 차를 끓여 마셨다는 내용의 시가 많은데, 여기에서 참된 다인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는 자신의 수양과 맑은 마음을 보존하기 위해 차를 마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 다동(茶童)

신위의 시에는 차를 끓여주는 ‘다동(茶童)’이 있었음을 뚜렷이 알 수 있는 시가 다수 있다. 그 대표적인 시는 다음과 같다.

<贈童>

尺長鼻涕髮垂肩 콧물이 한자에 머리는 어깨까지 늘어뜨리고
僂蜨狂蜂任性天 나비와 벌처럼 타고난 본성대로 사는구나
飼鶴煎茶完事業 학에게 먹이를 주고 차를 끓이면 할 일은 다했으니
紫藤花下打青錢²²⁴⁾ 붉은 등나무 꽃 아래에서 청동 구리 동전이나 치고 놀림

221) 신위, 진게서, p.1069. <聖住菴>.

222) 申緯, 「警修堂全藁」 9권, p.228. <起>.

223) 申緯, 「警修堂全藁」 28권, p.722. <獄中煎茶 (其一)>.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동자를 잘 묘사하고 있으며, 동자가 하는 일은 학을 기르고 차를 끓이는 일임을 알 수 있다. ‘다동(茶童)’이 나오는 다른 시의 내용은, “詩前妓捧鸚哥硯 (시를 지으려 할 때 기생이 앵무새 베틀을 준비하고) / 酒後童烹蟹眼茶 (술 마신 후엔 동자가 해안차를 끓이네)”²²⁵⁾ 와 “靑眼故人懷麗句 (좋은 시귀처럼 반가운 친구가 그리울 때) / 鬢頭童子捧團茶 (산발한 동자가 단차를 끓이네)”²²⁶⁾ 이다. 위의 두 시의 내용에서는 동자가 해안차와 단차를 끓이고 있다. 동자가 어떤 차를 끓이고 있는지 잘 아는 것으로 보아 동자는 신위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차를 끓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위가 표현한 다른 시에서는 목이 말라 차 생각이 간절해 동자를 찾지만 동자는 깊이 잠이 들어 깨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이 세 편 정도 있다.²²⁷⁾ 그리고 초 의가 준 새로운 차와 전에 보관하고 있던 묵은 차를 서로 섞어 두었다가 사용하게 하고 동자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했으며²²⁸⁾ 그 외에도 동자가 등장하는 시가 더 있다.²²⁹⁾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신위의 음다 생활에는 다동이 따로 있었으며, 다동과 관련된 내용이 많고, 다동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신위의 생활에

224) 申緯, 「警修堂全藁」 29권, p.743.

225) 申緯, 「警修堂全藁」 76권, p.1835. <重陽日>.

226) 申緯, 「警修堂全藁」 80권, p.1927. <碧蘆舫前庭 散步>.

227) 申緯, 「警修堂全藁」 80권, p.1972. <戲用古人五六言詩意 演成七絕自題畫 (其一)>.

“..... 一時喉渴正思茶 花下小童呼不起.”

申緯, 「警修堂全藁」 82권, <七夕>, p.1974. “ 酒渴思茶童子睡 殘燈自剔自添香”

申緯 著, 孫八洲 編, 「申緯全集」 第四集, p.1983. <壬寅 除夕>, “ 打餅隣翁欹枕聽 呼茶童子對爐眠 ”

228) 申緯, 「警修堂全藁」 72권, p.1769. <艸衣茶味太嫩 故與舊所藏壑源茶和勻 同貯一籠中 更俟陳新相入而用之也 又成一詩 將以示草衣也>, “..... 評品得聞於鴻漸 氣味相投借壑源 此是藏收又一法 侍童秘勿俗人言 ”

229) 申緯 著, 孫八洲 編, 「申緯全集」 第二集, p.425. <金馬淬鄭季鴻見餉酒壘嫩薑>, “ 徑入醉鄉方自適 小童何處嗅茶嘗.”

서 다동은 주인이 차를 찾으려면 언제든지 차를 끓여 내야 하기 때문에 신위 가까이 있는 하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김명배는 절에서 차를 끓이는 '다각(茶角)'²³⁰⁾ 도 '다동(茶童)'이라 하였다.²³¹⁾

8. 음다 시간

신위의 시에는 어느 때 차를 마셨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의 시들이 여러 편 있다.

1) 하루중의 때

하루 중의 때에서는 아침, 석양 무렵, 밤중에 마셨다는 내용의 시들이 여러 편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셨음을 알 수 있는 시는, “紙窓全白噪朝鴉 (종이창 밖은 환히 밝아 있고 아침 까마귀는 시끄럽게 우는데) / 烏帽籠頭自注茶 (검은 두건으로 머리를 싸매고 스스로 차를 따라 마시네)”²³²⁾ 이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난 후에 차를 끓여 마셨음을 알 수 있다.

석양 무렵에 차를 끓여 마셨음을 알 수 있는 시는 다음과 같다.

.....
.....
淡茗自燒紅葉煮 맑은 차를 스스로 낙엽을 태워 끓여서
夕陽變態一甌傾²³³⁾ 변해 가는 석양 속에서 한 사발 들이키네

230) 茶角은 승려가 되지 못한 어린이로서 절의 다방에 기거하고 있다. 일명 승각(僧角) 또는 다동(茶童)이라고도 한다.

231) 김명배, 「茶道學論攷」, p.70.

232) 신위 지, 권경달 역, 전개서, pp.88-89.

233) 申緯 著, 孫八洲 編, 「申緯全集」 第三集, p.1069. <聖住菴>.

혼자서 차를 엷게 끓여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마셨음을 시를 통해 알 수 있다.

석양 무렵에 차를 끓였음을 알 수 있는 다른 시는, “落日懸雙杵 (지는 해 속에 다듬이질 소리 들리고) / 烹茶掃紅葉 (차를 끓이며 단풍을 쓴다)”²³⁴⁾ 이다. 지는 해 속에 다듬이질 소리를 들으며 단풍을 쓸고 차를 끓인다는 내용이다. 또 다른 내용에서, “夕陽西下晚霞紅 (저녁 해가 서쪽으로 지니 노을이 붉고) / 鑪香未歇茶湯熟 (향로의 향 다 타기 전에 차가 익는다)”²³⁵⁾ 라고 하여 이 내용 역시 석양 무렵에 차를 마셨음을 알 수 있다.

신위의 시에는 차 마시는 때가 밤중임을 알 수 있는 시가 여러 편 있다. 아래의 시는 <閏月中旬夜 卽事 (윤달 중순 어느 날 밤에 즉흥적으로 짓다)> 라는 제목의 시 일부분이다.

.....
歌殘畫壁燈光暗	노래가 끝나자 그림 걸린 벽에는 등불 빛이 흐릿하고
客去茶烟酒氣濃	객이 간 뒤 차 연기와 술기운이 짙어가네
悄倚空欄仍不寐	쓸쓸히 빈 난간에 기대어 잠 못 드는데
三更吐月五更鍾 ²³⁶⁾	삼경엔 달이 솟고 오경엔 종소리 들리네

제목에 나타나 있듯이 밤에 차를 마셨음을 알 수 있다. 오르는 술기운을 차로 풀면서 잠 못 들고 마루에 앉았노라니 어느새 시간은 삼경(밤11시-1시 사이)을 지나 오경(새벽3시-5시 사이)이 되었다. 밤에 차를 끓여 마셨음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雲竇分泉竹裏廚	구름 있는 굴에서 끌어온 샘물은 대나무 숲 부엌에 있고
松聲入夜起風爐	밤이 되자 솔바람 소리가 풍로에서 일어나네

234) 申緯, 「警修堂全藁」 14권, p.390. <潘家莊>.
 235) 申緯, 「警修堂全藁」 82권, p.1960. <睡醉自題>.
 236) 申緯 著, 孫八洲 編, 「申緯全集」 第四集, p.1922. <閏月中旬夜 卽事>.

水華淡淡眞腴足 물거품은 담담하여 참으로 맛나고
茶葉森森正味蘇²³⁷⁾ 차 잎은 촘촘하며 正味가 생겨나네

.....

밤에 솔바람 소리가 풍로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차를 밤에 끓여 마셨음을 알 수 있다. 또 <西省直廬 每申²³⁸⁾刻 與秋史談藝 至夜分 得詩 凡四首 (서성에서 당직을 설 때 신시만 되면 추사와 함께 '예(藝)'에 대해 논했었다. 밤중이 되어 시를 지으니 모두 4수였다.)> 라는 제목의 시에서 밤중이 되어 차를 한 잔씩 나누어 마신다고 했으며²³⁹⁾, “酒熟茶香花月夕 (술 익고 차 향기로운 꽃피는 달밤에) / 忘年記否舊東隣 (친구는 옛 이웃인 나를 기억 할런지)”²⁴⁰⁾ 라고 하여, 이 내용 역시 봄날의 밤에 차를 끓여 마셨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볼 때 신위는 하루 중에 때를 가리지 않고 음다를 즐겼음을 알 수 있다.

2) 절기의 때

신위의 시에는 절기 중에 차를 마셨다는 내용이 몇 편 있다.

(1) 중양절

'중양절'은 음력으로 9월 9일을 중구 또는 중양 이라고 한다. '중구'란 말은 9가 겹쳤다는 뜻이며, '중양'이란 양수가 겹쳤다는 뜻이다.²⁴¹⁾

옛날 중국의 어떤 사람이 당과 송에 고사를 들여 3월 3일과 9월 9일을 명절로 삼아 신하들에게 명승지를 골라 즐기도록 하여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라고 부

237) 申緯, 「警修堂全藁」 30권, p.758. <汲南山石間泉 煎茶 茶味迥勝於井水>.

238) 오후 3시에서 5시까지를 말한다.

239) 申緯, 「警修堂全藁」 25권, p.624. “..... 水底春江剪細紋 活湯茶熟一甌分”

240) 申緯, 「警修堂全藁」 82권, p.1961. <送別徐稚嘉>.

241) 임재택외 4명, 「선생님! 세시풍속이 뭐예요?」 (서울: 양서원, 2001), p.149.

탁했었다. 그리고 왕이 허락하여 9월 9일이 명절이 되었다.²⁴²⁾

‘중양구(重九宴)’은 음력 구월 구일의 잔치 날이다. 9월 9일은 신라시대부터의 명절로서 고려 때도 국가적인 행사였고 조선시대에는 기로연(耆老宴)을 베풀고 특별과거시험도 치루었으며 민가에서는 국화전이나 화채를 만들어 먹고 차례를 지냈다. 또 중양 놀이라 하여 궁정에서나 선비들이 교외로 나가 시를 짓고 그림도 그리면서 하루를 즐겼다. 이와 같이 민가나 선비들의 풍류명절인 중양절에 충담이 부처께 차를 올렸음은 민간인의 차례와 같은 의미의 명절 현대로 볼 수 있다. 충담이 차를 올린 미륵세존은 선덕왕 13년(644)에 지은 절인 생의사(生義寺)의 부처님이며, ‘선덕왕 때 차가 있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으로 볼 때 이 풍습은 충담 이전인 7세기에도 있었을 것이다.²⁴³⁾

다음의 시는 <重陽日 (음력 구월 구일에)> 라는 제목의 시 일부분이다.

萸佩花糕重九宴	수유 넣은 주머니 차고 꽃 지저 떡 해먹는 중양절
去年今日在天涯	지난 해 이 날에는 타향에 있었지
詩前妓捧鷓哥硯	시 짓기 전에 기생이 앵무새 벼루를 준비하고
酒後童烹蟹眼茶 ²⁴⁴⁾	술 마신 후엔 동자가 해안차를 끓이네

.....

요즈음은 그런 풍습을 볼 수 없게 되었지만 옛날에는 중양절이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었던 것 같다.

(2) 칠석날

‘칠석(七夕)’은 음력 7월 7일로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다. 견우와 직녀는

242) 임재택 외 4명, 전계서, p.149.

243) 정영선, 「한국 茶文化」, pp.102-103.

244) 申緯, 「警修堂全藁」 76권, p.1835.

옥황상제의 별을 받아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바라보기만 하는데, 이것을 딱하게 여긴 까막까치들이 그 몸을 서로 연결하여 다리를 놓아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했다. 음력 7월은 바쁜 농사일이 거의 끝나고 더위도 한풀 꺾이기 시작하여 한숨 돌릴 수 있는 달이다.²⁴⁵⁾

칠석날의 풍속으로는 밀전병과 햇과일을 차려 놓고 가족의 건강과 집안의 평화를 빌며, 여름철의 장마와 더위 때문에 옷이나 책이 습기가 차므로 여름옷을 빨고 책을 널어 말리며 시 읊기 대회도 했다.²⁴⁶⁾

칠석날 먹는 음식으로는 밀전병, 밀국수, 과일, 화채, 호박전 등이 있다.²⁴⁷⁾

아래의 시 제목은 <칠석(七夕)>이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칠석날 지은 시다.

七月七日碧蘆舫	칠월 칠일 벽로방엔
耿耿銀河蘆葉蒼	밝고 밝은 은하수 갈대밭을 밝히는데
.....
酒渴思茶童子睡	술 때문에 목말라 차 생각 간절해도 동자는 졸고 있고
殘燈自剔自添香	혼자서 등잔심지를 돋우고 향을 사르네

신위는 이날 은하수가 밝아 갈대밭이 보이는 벽로방에서 차 생각이 간절해 지은 시다.

(3) 설달 그믐

‘설달 그믐’은 일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말일을 말한다. 우리말로 ‘작은설’, ‘까치설’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제일(除日)’이라고 한다. 여기서 ‘제(除)’란 지나간 날

245) 임재택외 4명, 전게서, p.134.

246) 한국의 세시풍속: <http://myhome.netsgo.com/nani77/>

247) 세시풍속과 음식: <http://my.dreamwiz.com/mylee2000/>

의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제거한다는 뜻과 그 해의 온갖 괴로웠던 것을 제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믐날에 나쁜 귀신을 쫓기 위해 탈을 쓰고 '처용무'라는 춤을 추었는데 처용은 춤과 노래가 뛰어나고 인품도 훌륭해 귀신까지 두려워하는 존재여서 사람들은 처용의 춤을 추며 귀신을 쫓았다고 한다. 각 집에서 집안 곳곳에 불을 밝히고 대문을 열어 두는 수세의 풍속이 있었는데, 이것은 조상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게 하고, 새해에 잡귀가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복을 맞기 위함에서였다. 또한 잠을 자지 않는 풍속이 있었는데 이날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된다고 한다.²⁴⁸⁾

일년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해가 무사히 다 지나가고 1년 동안 보살피 줌에 감사하는 뜻으로 묵은세배를 드렸다. 생대를 꺾어 불에 태워 딱딱 소리를 내는 딱충놀이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집안에 숨어 있던 귀신이 그 소리에 놀라서 멀리 달아난다고 한다. 짚을 엮고 불을 피워 긴 줄을 달아서 뱅뱅 돌리는 쥐불놀이도 했다. 이 날은 부스럼을 없애기 위해 무를 먹었고, 배추적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결명자를 끓여 마시기도 했다. 시래기를 새끼에 꼬아 말려 두어 된장국을 끓여 먹었다.²⁴⁹⁾

다음 시는 임인년(壬寅年) 즉, 자하가 74세인 현종 8년(1842) 설달 그믐에 지은 시이다.

逼歲青陽似去年	청춘을 재촉하기는 지난해와 한 가지라서
速於置駟尺書傳	역마를 통해 편지를 전하는 것보다 빠르다네
.....
打餅隣翁敬枕聽	이웃집 노인이 떡을 치니 베개에 기대어 듣다가
呼茶童子對爐眠 ²⁵⁰⁾	차를 찾으니 동자는 화로 옆에서 졸고 있네

248) 세시풍속과 24절기: <http://www.sdongs.com/>

249) 임재택외 4명, 전개서, p.179.

250) 申緯, 「警修堂全藁」 83권, p.1982. <壬寅 除夕>.

샘 등을 갖춘 독립된 집채로 차가 중시되는 집이라는 뜻이다.²⁵⁷⁾

신위의 시에 나오는 ‘다옥(茶屋)’에는 다옥 이외에 ‘소옥(小屋)’, ‘소봉옥(小蓬屋)’ 등도 다옥으로 포함시키고자 한다.

신위의 시에 ‘다옥(茶屋)’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吾廬瀟灑隱王城	우리 집은 쓸쓸히 왕성에 숨어 있는데
廡下南山紫翠橫	지붕 아래 남산은 단풍이 이어졌네
.....
客來茶屋孤烟起	객이 오면 다옥(茶屋)에는 한줄기 연기 피어나고
公退笞庭二鶴迎 ²⁵⁸⁾	퇴근하면 두 학이 이끼 낀 뜰에서 마중하네
.....

위의 시에서 다옥(茶屋)은 서울의 남산에 있으며 학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다옥(茶屋)’은 차를 끓여 손님을 맞을 수 있는 집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옥(茶屋)’은 깍다를 즐기는 일을 주된 목적으로 지은 집이다. 여기서 자신의 집을 다옥(茶屋)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자신의 집이 차를 목적으로 지어졌거나, 차를 중시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²⁵⁹⁾

‘다옥(茶屋)’의 용어가 나오는 또 다른 그의 시를 보면 “苔庭鶴啄猶殘雪 (학이 쪼아대는 이끼 낀 뜰엔 아직도 눈이 남았는데) / 茶屋人歸有冷烟 (손님이 돌아간 다옥에는 찬 기운만 남았네)”²⁶⁰⁾ 와 “淡香茶屋初動 / 扪瑟蘆窓雪後聲”²⁶¹⁾ 그리고 “吟廊茶屋勢因地”²⁶²⁾이다.

‘소봉옥(小蓬屋)’도 ‘소옥(小屋)’으로 포함 시켰다. ‘소옥(小屋)’은 글자 그대로 작

257) 육선자, 전계 논문, p.9.

258) 申緯, 「警修堂全藁」 35권, p.885. <寄謝吳蘭雪>.

259) 육선자, 상계 논문, p.9.

260) 신석초, 전계서, p.389.

261) 申緯, 「警修堂全藁」 72권, p.1759. <成成元朝試菴>.

262) 申緯 著, 孫八洲 編, 「申緯全集」 第三集, p.1254. <海居見和拙韻>.

은 집을 뜻한다.

‘소옥’이 나오는 신위의 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居>

看書拋却疊成堆 책 읽다가 던져둔 것 쌓여서 무더기를 이루었고
香篆烟茶撥不開 꼬불꼬불한 향과 차 연기는 흠어도 사라지지 않네
小屋何嫌賓位窄 작은 집이라서 손님 자리에 비가 샌들 흥이 될 것이 없네
更無一客拜年來²⁶³⁾ 더 이상은 새해 인사 오는 이도 없는걸

시에서도 나타나듯이 작은 집이라 차 향기와 연기는 잘 없어지지 않고 집에 비가 새어도 흥이 되지 않는다고 한 것으로 보아 그가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소봉옥(小蓬屋)’은 쭉 줄기로 엮은 조그만 집을 말한다.²⁶⁴⁾ 이곳 역시 다옥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如寄小蓬屋 (만약 쭉 줄기로 지은 조그만 집에라도 들린다면) / 茶爐有火否 (다로에는 아직 불이 남아 있다)”²⁶⁵⁾ 이다. 위의 내용에서 ‘소봉옥(小蓬屋)’이라고 한 것은 가난한 집의 형용이다. 즉 그가 거처하는 다옥은 사치스럽지 않고 검소했음을 알 수 있다.

2) 다실

‘다실’은 본체에 딸렸거나 혹은 다옥에 있는 음다 공간으로서의 방을 일컫는다. ‘다실’은 보통 다시속에 방(房)이나 실(室)로 많이 등장하며, 신위의 다시에는 음다 공간으로 다옥 이외에 ‘번경실(繡經室)’, ‘벽로방(碧蘆舫)’, ‘소합(小閣)’ 등과 같이 구체적인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특히 다문화(茶文化)가 발달하면서 차와

263) 申緯, 「警修堂全藁」 9권, p.229.

264) 김철환, 전계서, p.1779.

265) 申緯, 「警修堂全藁」 53권, p.1281. <秋懷>.

관련된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²⁶⁶⁾

본고는 방이나 실 이외에 소합과 서재도 다실로 포함시키고자 한다.

‘벽로방(碧蘆舫)’은 자하가 차를 마시는 서재 이름이다.²⁶⁷⁾ 다음의 시 제목에 벽로방이 나온다.

<碧蘆舫 前庭 散步>

.....

青眼²⁶⁸⁾故人懷麗句

鬢頭²⁶⁹⁾童子捧團茶

誰能畫我閑中景²⁷⁰⁾

舫閣香燈蘆荻斜²⁷¹⁾

.....

반가운 친구는 좋은 시귀처럼 그리운데

산발한 동자가 단차를 끓여오네

누가 나의 이런 여유 그려 낼 수 있을까

벽로방의 향등만이 갈대밭을 비추네

시 마지막 구에 나오는 ‘방각(舫閣)’의 ‘방(舫)’은 자하의 서재인 벽로방(碧蘆舫)을 말한다. 따라서 ‘벽로방’은 신위가 차를 마시는 방 이름임을 알 수 있다.

벽로방(碧蘆舫)이 나오는 다른 시를 보면, “七月七日碧蘆舫 (칠월 칠일 벽로방에) / 殘燈自剔自添香 (혼자서 등잔심지를 돋우고 향을 사르네)”²⁷²⁾ 이다.

자하 신위의 다실로는 ‘번경실(繡經室)’도 나오는데, ‘번경실(繡經室)’은 경을 읽는 방 즉 서재를 말한다.²⁷³⁾ 그 내용을 보면 “書來宛對繡經室 / 風味分嘗自製茶”²⁷⁴⁾ 라 하여 번경실에서 손수 만든 차의 풍미를 감상했음을 알 수 있다.

266) 육선자, 전개 논문, pp.42-43.

267) 신위 저, 권경렬 역, 전개서, p.179.

268) 진나라 죽림칠현(竹林七賢) 중의 하나인 완적(阮籍)이 반가운 친구가 오면 눈동자가 푸른색으로 변했다고 하는 고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좋아함을 뜻한다.

269)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로 늘어진 모양.

270) 한가한 경치.

271) 申緯, 「警修堂全藁」 80권, p.1927.

272) 申緯, 「警修堂全藁」 82권, p.1974. <七夕>.

273) 신위 저, 권경렬 역, 전개서, p.207.

274) 申緯, 「警修堂全藁」 79권, p.1915. <代書答艸衣師>.

‘서재’가 나오는 다른 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書樓山入卷簾夕 서재에선 저녁 산이 걷은 발 사이로 보이고
病榻涼生團扇秋 침대에서 부치는 가을 부채에선 서늘함이 느껴지네
.....
茶甌筆硯侵賓位 찻잔과 문방구가 손님자리를 빼앗아도
閑擲閑²⁷⁵拋懶未收²⁷⁶ 이리저리 던져둔 채 게을리서 치울 줄을 모르네

다음 시에는 음다공간으로 ‘소합(小閣)’이 나온다. ‘합(閣)’은 침방, 침실을 일컫는 방임을 나타낸다.²⁷⁷⁾

아래의 시는 <睡醉自題 (졸음에 취하여)> 라는 제목의 전문이다.

<睡醉自題>

瓶臥琴橫小閣空 술병은 뒹굴고 거문고는 누어 있는 작은 방에
夕陽西下晚霞紅 저녁 해가 서쪽으로 지니 노을이 붉다
鑪香未歇茶湯熟 향로의 향 다 타기 전에 차가 익으니
睡在雙烟一氣中²⁷⁸⁾ 한 두 갈래 연기 속에 졸음이 오네

‘소합(小閣)’은 작은 방으로 그 안에 술병과 거문고와 향로가 있고 차를 끓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위는 ‘산방’에서도 차를 끓여 마셨다. 즉 “山房喉喝對茶鑪 / 惆悵崧陽酒百壺”²⁷⁹⁾ 라 하여 산방에서 술 대신 다로(茶鑪)를 대하여 차를 마셨음을 알 수 있다.

275) 閑擲閑은 내버려 두는데 익숙해져 있다는 뜻으로 서재에 찻잔과 문방구가 정리되어 있지 않고 여기저기 뒹굴고 있다는 내용이다.

276) 申緯, 「警修堂全藁」 67권, pp.1664-1665. <散跡>.

277) 육선자, 진계 논문, p.43.

278) 申緯, 「警修堂全藁」 82권, p.1960.

3) 기타의 장소

앞의 내용 외에도 신위의 시에는 감옥과 농부 집, 별장에서 차를 끓여 마셨다는 글이 있다.

‘감옥’에서 차를 끓였음을 알 수 있는 시가 두 편 있는데, 그 당시에 자하는 옥중(獄中)에서까지 차를 끓여 마셨음을 알 수 있다. 그의 나이 56세 되던 1824년(순조 24년)에 그의 종이 공무를 집행하는 관리를 구타한 사건으로 해서 그도 또한 체포되어 며칠 동안 옥에 갇힌 일이 있었다.²⁸⁰⁾ 이 때 그는 <獄中煎茶 (감옥에서 차를 끓이며)>라는 제목으로 2편의 시를 지었다.²⁸¹⁾ 몸은 비록 옥중에 있지만 그의 생활에서 차는 항상 그의 가까이 있었으며, 정신을 새롭게 가다듬게 해 주는 것이었다.

제목에 나타난 <반가장(潘家莊)>은 사천(沙川)에 있는 반씨의 집으로 차를 끓이고 단풍을 즐기고 술을 마셨다는 것 이외에는 자세히 알 수 없다.²⁸²⁾

지금까지 살펴본 자하의 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차 마시는 공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신위의 생활에서 그가 어디를 가든 차는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다. 책을 보고 공부하다가, 술을 마시고 숙취를 풀기 위해, 잠이 깨어 목이 말라서, 거문고를 켜며 흥에 겨워 차를 마시기도 했다. 꼭 다실이 아니어도 그가 머무는 곳이 모두 음다 공간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실이나 집을 차만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는 일본의 다실과 다른 점이기도 하다.²⁸³⁾

279) 申緯, 『警修堂全藁』 66권, p.1630. <余嗜飲崧陽紅穀桂露之和糖屑者 非此不飲 故崧陽人士必携而繼之 近因士人之稀濶 止酒 悵然題此>.

280) 김상현, 전개서, p.134.

281) 상계서, pp.134-135. <獄中煎茶(其一)>, “索索響扉饑鼠出 幽幽背壁曙燈昏 夢回我與茶鑿嘴 一樣綿綿氣息存.” <獄中煎茶(其二)>, “席地寒衾卒伍同 茶爐幸有火通紅 耳根暫借松風響 咫尺神遊澗壑中.”

282) 신석초, 전개서, p.356.

283) 육선자, 전개 논문, p.46.

겼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시에는 실내에 ‘꽃꽂이 한 꽃’이 꽂혀있는 내용이다.

九陌香塵萬斛紅	사방으로 향기 가득한 꽃들은 만발한데
一春幽事閉門中	온 봄 내내 집안에서 또 다른 멋 즐기네
茶經品水能醒肺	다경에서 논한 차는 폐부를 시원하게 해주고
瓶史修花不怕風 ²⁸⁸⁾	병사따라 꽃꽂이 한 꽃은 바람을 두려워 않네.
.....

‘병사(瓶史)’는 명(明)나라 원굉도(袁宏道)가 지은 1권으로 된 일종의 꽃꽂이 해설서이다.²⁸⁹⁾

위의 시는 방안에 꽃이 꽂혀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꽃이 떨어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다.

288) 申緯, 「警修堂全藁」 67권, p.1652. <次韻黃山尙書>.
289) 신위 저, 권경렬 역, 진계서, p.143.

IV. ‘茶’를 통한 문화적 교류(交遊)와 다회(茶會)

1. 사회적 배경

자하는 영조45년(1769)에 출생하여 정조(1777-1800), 순조(1801-1834)를 거쳐 헌종11년(1845)에 졸(卒) 하였다. 따라서 그의 주요 활동시기는 정조 말엽으로부터 순조대에 이르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자하가 주로 활동했던 순조 때에는 조선 사회가 개화기로 이행되는 시기이며 문화·예술면에서 조선 회유색(回有色)을 찾으려는 노력과 청대 문화(清代 文化) 유입이 교차하는 시기였다.²⁹⁰⁾

자하가 활동한 순조조의 앞 시대인 영·정조의 약 80년은 문화적 업적이 전후 시대에 볼 수 없는 발전과 특색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의 전화(戰禍)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국군이 새로이 진흥(振興)된 점, 둘째, 탕평책으로 당쟁이 진압되고 기강이 확립되어 모든 문화와 제도가 참신한 기풍이 생긴 점, 셋째, 영·정 두 임금의 몸소 학문과 문예를 애호하여 문화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규장각을 설치하여 많은 연구와 서적 간행의 업적을 남긴 점, 넷째 우수한 자질을 지니고 신학에 관심 있는 학자를 양성하여 배출한 점 등이 다.²⁹¹⁾

조선 후기 사회는 천주교와 동학의 등장이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유교를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의 통치력을 위협하였다.²⁹²⁾

290) 신상기, 전계논문, p.7.

291) 손팔주, 전계 논문, p.28.

292) 나남미, 「朝鮮後期 茶道 思想 研究」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1997), p.7.

이 시대에 우리 나라와 정치·경제·문화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청조의 학풍은 고전박학(古典博學)으로 선진철학(先秦哲學)·양한경학(兩漢經學)·수당불학(隋唐佛學)·송명리학(宋明理學)등 각 시대 사상을 종합한 대표적 학풍이었다.²⁹³⁾

많은 학자들은 모두 엄숙한 태도와 과학적 정신으로 진지하게 노력하고, 학문상 꾸준한 연구를 계속하여 경학(經學)·사학(史學)·교감학(校勘學)·지학(地理學)·금석(金石)·변위(辨僞) 등 각 방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들이 학문에 종사하는 태도와 정신은 주관적 명상(冥想)을 반대하고 객관적 고찰을 위주로 하며 공론을 배척하고 실천을 제창하였다.²⁹⁴⁾

사회 일각에서는 현실에 대한 자기 반성과 사회변혁을 갈망하면서 실학이 발흥하게 되었다. 실학은 경세치용·이용후생·실사구시를 주장하며 그 결과로 자아를 발견하는 주체 사상이 확립되고 사회에 대한 냉철한 비판의식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특히 실사구시를 표방하는 실학사상이 기존의 전통 성리학을 대신하여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자생적이며 자주적인 사상으로 정착되어 갔다.²⁹⁵⁾

19세기 문학의 출발은 실학과 문학의 퇴조에서 시작된다. 성리학의 사회 질서에 대한 회의로부터 출발한 실학과 문학은 유가의 학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비판과 현실인식에 주력한 우국애민의 문학을 전개하였다.²⁹⁶⁾ 또한 중국시의 규범에서 탈피한 조선시를 창작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자주적 견해는 주로 우리 문학의 독창성 내지는 주체성으로 귀일 된다.²⁹⁷⁾

한자로 쓰여진 시에 우리의 사상과 감정을 붙여넣어 우리의 시를 쓰는 것은 문학적 환경과 함께 그 동안에 쌓여온 인습으로 보아 어려운 일이었다. 그 결과

293) 신상기, 전계 논문, p.18.

294) 상계 논문, p.18.

295) 상계 논문, p.18.

296) 정원표, 전계 논문, p.19.

297) 상계 논문, p.19.

중국시의 규범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를 지어 우리 나라의 시인지 중국의 것인지 구분하지 못했던 경향도 있었으며 이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고 있었다.²⁹⁸⁾

이미 여말에 익제(益齊)는 우리의 전고를 사용하고 조선전기의 성현(成俔)은 우리의 지명과 민속을 시재로 사용하였으며 조선 후기의 연암 박지원, 다산 정약용에 와서는 조선풍·조선시의 주장을 하게 된 것이다. 조선 시는 지명·물명·고사·용사 등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작품의 내용 속에 우리의 정서를 형상화하려고 한 것이었으나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다.²⁹⁹⁾

실학파의 이러한 문학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인 연암 박지원은 1805년에 세상을 뜨고, 정약용과 이학달은 신유사옥때 유배당하였으며 실학파인 다산의 문학은 사실 관료문단과 거리가 먼 문학 활동만을 유지했다.

연암의 죽음과 다산의 유배로 인한 실학파의 퇴조로 19세기 문학은 새로운 문학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³⁰⁰⁾

순조 시대는 문학활동을 영위하는 점에서는 전시대보다 그 여건이 좋지 못하였다. 그것은 당쟁으로 인한 문학인구의 감소와 천주교 박해로 인한 남인학자의 몰락 때문이었다.³⁰¹⁾

정조가 승하하고 순조가 즉위 하여 대왕대비 김씨가 후견하자 천주교에 대한 혹독한 박해로 순조 시대의 막은 열리게 되었다.³⁰²⁾

순조 원년 2월에 신유박해로 정약종이 사형되었고, 정약전, 정약용은 유배당하여 이 시대의 문학활동은 매우 위축되었다. 이러한 천주교의 전래와 이에 대한 탄압은 우리 문학에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천주교의 탄압은 남인에 대한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에서 발단되었지만 그 휴유증은 학문연구의 방

298) 차길선, 전계 논문, p.8.

299) 상계 논문, pp.8-9.

300) 정원표, 전계 논문, p.19.

301) 상계 논문, p.19.

302) 차길선, 상계 논문, p.8.

법과 시문학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³⁰³⁾

전대 문학의 위축으로 19세기는 새로운 문학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것은 추사와 신위의 인간 내면세계의 탐구로 나타났다. 추사는 실사구시에 입각한 고증학으로 기울게 되었고, 신위는 시를 통하여 문학의 예술성 추구에 주력하게 되었다.³⁰⁴⁾

조선시대의 시는 대체로 당풍 위주의 시였다. 당시의 풍격은 조선인으로는 감히 따를 수 없었다. 조선의 시는 표현의 시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신의 시를 창출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³⁰⁵⁾

신위는 또한 유가의 문학관에 바탕을 둔 예도적 문학관을 추구하여 시문학을 예술로서 파악하는 동시에 서·화와 결합되는 양상을 구명하는 새로운 문학을 건설하였다. 예도적 문학관이 당시에 전무한 것은 아니었지만 효용적 문학 평가에 압도되었던 당시의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신위의 문학 성향은 새로운 기류였다. 신위는 유가의 시관에 대한 갈등 속에서 시·서·화로 완성하려고 노력하였다.³⁰⁶⁾

자하(紫霞)는 다산(茶山) 정약용 [(丁若鏞):1762-1836] 과 낙하(洛下) 이학규 [(李學逵):1770-1833] 와 막역한 사이였으므로 정치·경제의 제도나 국민의 생활과 사상등 현실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한편 청의 홍유(鴻儒)였던 옹방강 [(翁方綱):1735-1818] 의 영향을 많이 받아 금석학(金石學)·고증학(考證學)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³⁰⁷⁾

신위는 당시의 당쟁이 심한 상황 속에서도 그 교유의 범위가 초당적(超黨的)이며 광세적(曠世的)이었다. 즉 호방하고 원만한 성품으로 어떠한 이해관계도 배제

303) 차길선, 전계 논문, pp.8-9.

304) 정원표, 전계 논문, pp.20-21.

305) 차길선, 상계 논문, p.11.

306) 정원표, 상계 논문, p.22.

307) 손팔주, 「申緯 研究」, p.123.

하고 의연하면서도 적극적인 교류로 폭넓은 대인관계를 가졌던 것이다.

2. 여러 다인들

신위의 다시 가운데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본고에서는 시상(詩上)에서 차(茶)와 뚜렷이 부각된 교류의 사실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자 한다.

1)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

추사 김정희 [(金正喜):1786-1856]³⁰⁸⁾ 는 18세기말에 태어나서 19세기 외척 세도 정치기에 활동한 조선 예원의 마지막 불꽃같은 존재이다.³⁰⁹⁾

김정희는 신위보다 17년이나 아래인 후배로 시·서·화에 능했던 인물이다.

김정희와 신위가 언제부터 교류 하였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둘은 연령과 당색을 초월하여 예술적 교류를 하였다. 신위가 연행(燕行)하기 바로 전 해인 1811년 김정희가 그의 부친과 함께 북경에서 옹방강 등과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이미 신위의 학식을 중국 학계에 소개하였다. 그리고 그 이듬해 신위가 연행할 때, 김정희는 그에게 옹방강을 꼭 만나도록 부탁하였다. 신위의 나이가 43세, 김정희의 나이가 25세였던 1811년(순조11년) 이 둘은 이미 서로를 알고 있었으니, 이 두 사람의 인연은 그 이전부터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

308) 시서화가이며 문신으로 호는 완당(阮當), 추사(秋史), 예당(禮堂), 시암(詩庵), 과파(果坡), 노과(老果) 외에 차를 무척 좋아하여 다로(茶老), 고정실주인(古鼎室主人), 승설차의 이름을 본딴 승설학인(勝雪學人)등이 있다. 충청우도암행어사, 성균관대사성, 이조참판등을 역임하였고, 학문에서는 실학과에 속했으며, 서예에서는 독특한 추사체를 대성시켰는데 특히 예서와 행서에서 새 경지를 이룩하였다. 저서로는 「완당집」 「실사구시설(實事求是設)」 「금석과안록(金石過眼錄)」등이 있다. 30살에 다산의 아들 유산의 소개로 동갑인 초의를 만나 친교가 두터웠으며, 초의로부터 해마다 차를 얻어 마셨다.

309) 정옥자, 「우리 선비」 (서울: 현암사, 2002), p.308.

다.³¹⁰⁾

김정희는 신위와 19세기 예단(藝壇)을 전·후로 양분하여 주도했던 경쟁자였으면서도 서로가 신뢰와 경외를 아끼지 않고 정신적 교감을 주고받았던 사이였다.³¹¹⁾ 신위는 김정희와 시뿐만 아니라 차와 서화에 관하여 화답한 글이 『경수당 전고(警修堂全藁)』에 여러 편 전한다.

신위는 18세기의 시대상황을 추사보다 직접적이고 폭넓게 체험한 선배였을 뿐만 아니라, 추사의 유년기에 이미 당대 대가의 반열에 올라 있던 인물이었다. 따라서 추사가 자기 면모를 확연히 드러내기 이전의 성장기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을 신위에게 의지했으리라 짐작된다.³¹²⁾

다음의 시는 신위가 추사와 당직을 설 때 쓴 시다.

<西省直廬->

氷底春江剪細紋 얼음 밑 봄 강물의 가는 물결 떠다가
活湯茶熟一甌分 끓는 물에 차를 익혀 한 잔씩 나누어 마시네
定知不但緣聯句 참으로 알겠네. 단지 연구 때문이 아니라
何遜原應愛范雲³¹³⁾ 하손은 원래 범운을 사랑했으리라는 것을

위 시의 제목은 <西省直廬 每申刻 興秋史談藝 至夜分 得詩 凡四首 (서성에서 당직을 설 때 신시만 되면 추사와 함께 예술에 대해 논했었다. 밤중이 되어 시를 지으니 모두 4수였다.)> 이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위와 추사는 자주 만나 차를 마시고 예술을 논했음을 알 수 있다.

310) 김현정, 전계 논문, pp.14-15.

311) 상계 논문, p.15.

312) 김동진, 전계논문, p.2.

313) 권경렬, “조선 시대 문인들의 다시문”, 『茶 文化 연구지』 (한국 다문화연구소, 1996, 1), p.35.

2) 초의 장의순(草衣 張意洵)

자하는 전통적인 유가의 가문에서 성장하였지만 1827년 그의 나이 59세때 부인 조씨가 죽자 만년에 불교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불교계의 선승들 금파대사(錦波大師), 보혜(普惠), 선홍(善洪)등과 교유가 빈번하였는데 특히 추사의 지우였던 초의 장의순 [(草衣 張意洵):1758-1826] ³¹⁴⁾ 과는 많은 시를 주고받을 만큼 돈독한 사이였다.³¹⁵⁾

초의는 시(詩)·서(書)·화(畫)·선(禪)·다(茶) 5絶으로 불리던 선사(禪師)이자 예인(藝人)이다.³¹⁶⁾

자하와 초의은 1830년에 처음 만났는데³¹⁷⁾ 김정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³¹⁸⁾

자하와 초의는 차와 예술과 시 뿐 아니라 서화에 관한 왕래가 잦았으며 그 영향으로 신위의 시 작품에서 차와 선의 정신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³¹⁹⁾

314) 호가 초의인 의순은 현종으로부터 대각등계보제존자초의대선사(大覺登階普濟尊者草衣大禪師)의 사호를 받은 분으로 전남 무안 태생이다. 15세 때 나주군 다도면 운흥사 벽봉스님께 입산하여 차 생활을 시작하였다. 19세 때(1804) 영암 월출산에 혼자 오르다가 문득 바다에서 떠오르는 달을 보고 깨쳤다 하며 그후 대흥사에서 완호 스님을 뵈고 초의(草衣)를 받았다. 한국의 다경인 「동다송」, 「다신전」을 지었고 시서화의 삼절이라 불리었다. 초의는 「동다송」에서 차의 맛을 내는 일을 유가(儒家)의 윤리적 삶에 비유하였다. 즉 잘 만든 차와 좋은 물을 가지고 알맞은 분량으로 중(中)을 얻고, 찻물이 잘 우려나 화(和)하면 중도(中道)를 얻게 되어 이상적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선(禪)과 교(敎)에 두루 정통했던 승려로서 「선문사변만어」, 「진묵조사유적고」 등의 책을 저술하였다. 초의는 24세(1809)때 강진에 있던 다산 정약용의 문하에서 오랫동안 유학과 시도를 공부했다. 그는 승려로서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 다산의 아들 유산, 혜거 홍현주, 자하 신위, 소치 허유, 위당 신위등과 교유를 한 종학(宗學)을 넓은 마당발 인사였다. 「일지암시고」, 「문자반야집」 등의 책을 남겼는데 그 중 다시문이 이십여 편 있다.

315) 이연세, 전개 논문, p.13.

316) 김미선, 「초의 장의순 시의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1999), p.4.

317) 장의순 저, 정영선 편역, 「동다송」, p.176.

318) 유은희, 전개 논문, p.11.

319) 상계 논문, p.10.

신위의 다시에는 초의와 관련된 내용의 시가 여러편 있다.

<艸衣次余贈錦船詩韻 甚佳 故更用原韻 賦示 時艸衣爲其師玩虎大師建三如塔 乞銘詩於海居都尉 乞序文於余 而遺以四茶餅 卽其手製 所謂寶林白茅也 詩中并及之
320) (초의 스님이 내가 박영보(朴榮輔)에게 준 시의 운을 따라 시를 지었는데 매우 좋았다. 그래서 다시 원래의 운을 따라 시를 짓는다. 이 때에 초의 스님이 그 스승 완호대사를 위해서 참여답을 세우면서 명시(銘詩)는 해거도위에게 짓게 하고, 서문은 내게 부탁하였다. 그러면서 떡차 네 덩어리를 보내 왔는데 바로 그가 직접 만든 것으로 이른바 보림백모였다. 시 속에 아울러 그 일을 언급하였다.)>
라는 시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의가 신위에게 완호대사의 참여답을 세우면서 신위에게 서문을 부탁하면서 차를 보내왔는데 그 차를 받고 지은 시가 있다.³²¹⁾

다음의 시도 신위가 초의를 위해 쓴 시다.

戀情刊落略無痕 속세의 정은 깎아낸 듯 조금의 흔적도 없는데
未足平生茗事存 차 마시는 일은 평생토록 계속되네
.....
氣味相投借壑源 학원차로 기운과 맛 서로 투합 시켰네
此是藏收又一法 이것은 차를 보관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니
侍童秘勿俗人言³²²⁾ 동자야 비밀로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위의 시는 초의가 보내준 차가 너무 어려서 이전에 소장하고 있던 차와 섞어서 보관했다가 사용하고서, 초의를 위해 쓴 시다.

320) 申緯, 「警修堂全藁」 47권, p.1151. ".....苦茗嚴時宜砭俗 好詩佳處合參禪 乞銘二夢師 如在 彈指三生性自圓 檀越滿城歸不得 忘情時有爲情牽."

321) 申緯, 「警修堂全藁」 47권, p.1151.

322) 申緯, 「警修堂全藁」 72권, p.1769. <艸衣茶味太嫩 故與舊所藏壑源茶和勻 同貯一籠中更俟陳新相入而用之也 又成一詩 將以示艸衣也>.

다음의 시는 대둔사의 스님인 초의가 자하를 방문하여 그의 스승 '완호삼여탑명(玩虎三如塔銘)'의 서문과 글씨를 써 달라고 부탁하면서 지은 시다. 그런데 서문은 완성했으나 글씨는 미처 쓰지 못하고 귀양을 가게 되었는데 원문마저 잃어버려 심히 한탄하던 중 초의가 글씨와 부분(副本)을 보내서 비로소 탑명(塔銘)을 새기게 되었으므로 축하하는 뜻으로 지은 것이다.³²³⁾

<代書答艸衣師>

海鎮山郵天謫日 바닷가 산골로 귀양가던 날
 恹惶文囊在亡多 경황이 없어 글 쓴 것을 많이 잃었다.
 塔銘一失嗟無及³²⁴⁾ 탑명을 잃어버리고 어쩔 줄 모르다가
 禪墨重翻字不訛 스님께서 베껴둔 원고는 글자 한자 틀리지 않네
 葳事終資千佛力 그대 일 마치니 결국 부처의 힘인 듯
 勞心好作十年魔 공언히 노심초사 십 여 년을 걱정했네
 書來³²⁵⁾宛對繡經室 쓰고 나서 서재에서 천천히 바라보며
 風味分嘗自製茶³²⁶⁾ 그대가 손수 만든 차와 함께 음미해 보네

초의가 탑명의 서문과 글씨를 부탁하는 것으로 보아 자하는 불교적 학식이 뛰어나았음을 알 수 있고, 초의와의 교류(交遊) 또한 짐작 할 수 있다.

3)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과 유산 정학연(酉山 丁學淵)

다산 정약용 [(茶山 丁若鏞):1762-1836] ³²⁷⁾ 은 영조 38년에 태어나서 현종 2년

323) 방경순, 전계 논문, p.52.

324) 초의가 완호대사의 부도를 세우면서 서문을 부탁한 일이 있었는데 이 구에서는 그 원고를 잃어버려 일을 마무리 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325) 서문을 지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글씨를 직접 써 달라는 부탁을 받았었다.

326) 손팔주, 「申緯 研究」, p.36.

327) 정치, 경제, 법제, 지리, 경학에 걸친 대학자이며 문신으로, 호는 다산(茶山), 삼미(三眉), 여유당(與猶堂), 사암(俟菴), 자하도인(紫霞道人), 탁옹(籜翁), 태수(苔叟), 문암일인

까지 살다간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전반의 조선의 대학자였다.³²⁸⁾

자하(紫霞)는 당시 권력의 주도권을 잡고 있던 노론계열의 추사 같은 인물과의 교류 뿐만 아니라 현실권 밖으로 밀려나온 불우한 계층과도 활발히 교류 하였다.

신유박해(辛酉迫害) 사건으로 오랫동안 귀양살이를 해야만 했던 다산 정약용과는 시예(詩藝)를 논하는 막역한 사이로 용문사에 모여 시예를 토론할 약속을 하였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고 그 아쉬움을 노래한 시가 전한다.³²⁹⁾

다산은 20세에 차를 좋은 샘물에 끓여 맛을 시험할 정도였고(이때 초의는 태어나지도 않았으며 혜장은 10살이었다.) 차가 나쁜 버릇을 다스린다고 여겼으며 혼자 차를 즐길 줄 알았고, 다당의 빛깔과 향기를 자세히 감상하며 즐기는 다인이었다. 또한 청년기부터 차 생활을 하여 관직에 있으면서 약 20년간 귀족과 선비 다풍을 섭렵하였다.³³⁰⁾

신위와 다산과의 교의를 알 수 있는 시로는 '陽根倅李樵行書致香蔬', '索余紫霞山蔣圖', '以詩答之'와 1836년 2월 22일 다산(茶山)의 회혼(回婚)을 기린 시 등이 있고, 다산의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에 초의에게 당부하는 글이 전해지며³³¹⁾,

(門巖逸人), 철마산초(鐵馬山樵), 다산초부(茶山樵夫) 등이다. 다산은 1762년 음력 6월 16일 한강변 광주 초부면 마현리(오늘날의 남양주군 와부면 능내리)에서 태어났다. 1783년에 회시(會試)에 합격하여 경의진사(經義進士)가 되어 어전에서 중용을 강의하고 이듬해부터 서학(西學)에 관한 책을 읽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의 학문 체계는 류형원(柳馨遠)과 이익(李瀾)을 잇는 실학을 집대성한 것이었다. 「목민심서(牧民心書)」, 「경세유표(經世遺表)」, 「흠흠신서(欽欽新書)」,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등 510여 권의 저서를 남겼다.

1818년 그가 57세인 해 9월에 18년간의 귀양살이에서 풀려나 「여유당」이 있는 경기도 광주군 초부면 마현리 본가에서 18년 동안 여생을 보내며 많은 책을 저술하고 75세에 세상을 떠났다.

328) 정옥자, 전개서, p.294.

329) 申緯 著, 孫八洲 編, 「申緯全集」 第二集, p.1008.

330) 정영선, “한국 다문화의 중흥조론”, 「차 문화 연구지」 (한국 다문화연구소, 1998, 3), P.10.

331) 정약용 저, 박석무 역,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1), p.288.

다산의 아들 유산 정학연 [(酉山 丁學淵):1783-1855] 과 창수(唱酬)한 작품도 허다하다.³³²⁾

다음의 시에는 신위가 다산의 다법에 따라 차를 끓였다는 내용이 나온다.

<翠微副使歸示錢一>

茶山傳法淡烹茶 다산이 전한 방법대로 차를 맑게 끓이네
睥睨南朝有幾家 남조를 생각해 보니 몇 나라나 있었던가?
弔古翩翩詞致冷 옛일을 상심하니 시의 운치조차 식어 가는데
西風吹瘦馬 가을 바람 불어와 마승화를 시들게 하네

위의 시에 <茶山傳法淡烹茶 (다산이 전한 방법대로 차를 맑게 끓이네)>라고 하였는데 그 당시 차의 맛을 잘 내기로 유명한 자하도 '담명(淡茗)'을 끓인다고 한 글로 보아 당시의 선비 음다 풍속도 다산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음을 알 수 있다.³³⁴⁾ 다산과 관련된 또 다른 내용을 보면 “香山氣味茶山韻 / 深得淵明五字來”³³⁵⁾ 이다.

3. 그 밖의 교유 인물

신위의 시에는 차와 관련하여 추사, 초의, 다산, 유산이외에도 여러 인물들이

332) 「次韻西山, 孝廉寄懷五首」와 「次韻西山, 三月十五日騎驢出奉安驛, 至申氏別業」 및 「次韻答西山寄七言長歌」 등이 있으며 이 시에 나타나듯이 유산(酉山)은 자하를 무척 존경했던 것으로 보인다.

333) 申緯, 전개서, p.963. <翠微副使歸示錢金粟學士林近體雜詩 有論詩絕句又有題余懷人詩後二絕句 故各用其意 以俟冬使附寄金粟爲謝>.

334) 정영선, “한국 다문화의 중흥조론”, 「茶文化 연구지」 (한국 다문화연구소, 1998, 3), p.13.재인용.

335) 申緯, 「警修堂全藁」 32권, p.804. <晚拙聊拙合集編次訖>.

등장한다. 우초(雨蕉)와 소음(篠飲), 권영좌(權永佐) 그리고 중국의 학자인 오승량(吳嵩梁) 등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신위는 조선시대 문인으로 호(號)는 미산이고, 이름은 영좌(永佐)인 다우를 먼저 떠나 보내고 그를 애도하며 2편의 시를 지었다.

.....
君死家人檢箱籠³³⁶⁾ 그대가 죽고 가족들이 그대의 상자를 살펴보니
猶殘宣德蠟茶鑪³³⁷⁾ 오직 선덕 시대에 만든 차 화로가 남아 있네³³⁸⁾

권영좌를 애도하는 또 다른 시는 다음과 같다.

昨歲宮商證樂章³³⁹⁾ 작년에 오음을 악장에서 시험할 때
留君飯罷鬪茶香³⁴⁰⁾ 그대를 잡아 두고 식사 후엔 차 향기를 겨루었지
.....

권영좌는 일반적인 친구가 아니라 차 향기를 겨루기 위해 가지 못하도록 잡아둔 다우(茶友)였다. 그래서 그를 잃은 마음은 유난히 애통한 것이다.

다음의 시는 본명은 알 수 없으나 신위와 친우였던 것으로 생각되는 다인 우초와 소음을 생각하며 지은 <肅命之翌日 訪故雨蕉篠飲二侍郎宅 始爲寢門之哭 有作五首 (사은숙배한 다음날에야 고(故) 우초, 소음 두 시랑댁을 찾아서 비로소 사

336) 책이나 옷 등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넣어 두는 상자를 말한다.

337) 茶鑪는 선덕 황제 때 만들어진 매우 아름다운 향로로 선덕은 명나라 선종(宣宗) 황제의 연호(年號)이다.

338) 申緯, 「警修堂全藁」 42권, p.1054. <哭權米山進士永佐絕句 (其一)>.

339) 궁상(宮商)은 오음에서 궁과 상의 소리 즉 음률을 말한다. 증악장(證樂章)은 자하가 1828년에 강화유수가 되었을 때 문조(文祖)로부터 당시절구(唐詩絕句)를 뽑아 올리라는 명을 받고 작업하던 일을 말한다.

340) 申緯, 상게서, p.1055. <哭權米山進士永佐絕句(其二)>.

량채 문에서 곡을 하고 다섯 수를 짓다.)> 라는 제목의 시 일부이다.

.....
嗜古揮金輕產業 옛 것을 좋아해 물 쓰듯 돈들이며 집안 살림 소홀히 했고
焚香瀹茗送平生 향을 피우고 차를 끓이는 일에 평생을 보냈네
同盟後死嗟吾獨 친구들 다 죽고 아아 나만 홀로 남아서
閱劫秋風動石鯨³⁴¹⁾ 가을 바람에 석경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다니³⁴²⁾

위의 시에 나타나듯이 집안 일을 소홀히 하고 차를 끓이고 마시는 일로 평생을 같이 보낸 친구들을 먼저 떠나 보내고 지은 시다.

신위는 또 청나라 강서동향(江西東鄉) 사람인 오승량을 생각하며 시를 썼다.

.....
客來茶屋孤烟起 객이 오면 다옥(茶屋)에는 외로이 연기 피어나고
公退答庭二鶴迎 공직에서 돌아오면 두 학이 이끼 낀 뜰에서 맞이하네
莫笑軟紅塵送老 비웃지 마오, 부질없이 속세에서 늙는 것을
冷卿居止似諸生³⁴³⁾ 한직의 관리는 보통 유생과 같다오.

위 시의 제목은 <寄謝吳蘭雪 (오란설에게 주어서 사례함)>이다. 자하가 70세때 오란설에게 준 시인데 그의 집 풍경이 잘 나타나 있다.³⁴⁴⁾ 오승량은 청나라 사람이며, 자(字)는 란설(蘭雪)이고, 호는 석계방(石溪舫)이다. 시에 능해 조선 때 이조

341) 석경(石鯨)은 한나라 무제(武帝)가 곤명지(昆明池) 안에다 설치한 것으로 비가 오고 천둥이 치면 포효 하는 듯한 소리가 나며 꼬리가 움직인다고 한다. 여기서는 대궐 안을 의미한다. 이 구는 친구들은 가고 없는데 혼자 관직에 나아가는 것이 쓸쓸함을 표현한 것이다.

342) 申緯 著, 孫八洲 編, 「申緯全集」 第四集, p.1568. <肅命之翌日->.

343) 申緯, 「警修堂全藁」 35권, p.887. <寄謝吳蘭雪>.

344) 김상현, 진계서, p.134.

판서를 지낸 추사의 아버지 김노경(金魯敬)은 그를 시불(詩佛)이라고 불렀다.³⁴⁵⁾

4. 다회(茶會)

‘다회(茶會)’는 차를 마시는 모임이라는 뜻으로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차를 마시는 상황’과 ‘차를 주제로 결성한 단체’ 등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³⁴⁶⁾

본고는 신위의 다시 중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차를 마신 시’를 대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다음의 시는 신위가 추사와 동궐에서 당직을 설 때 매일 신시(申時: 오후 3-5시)가 되면 강물을 떠다 차를 끓여 마시면서 예(藝)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다는 내용이다.

<西省直廬 每申刻 與秋史談藝 至夜分 得詩 凡四首 >

氷底春江剪細紋 얼음 밑 봄 강물의 가는 물결 떠다가

活湯茶熟一甌分 끓는 물에 차를 익혀 한 잔씩 나누어 마시네

定知不但緣聯句 참으로 알겠네. 단지 연구 때문이 아니라

何遜原應愛范雲³⁴⁷⁾ 하손은 원래 범운을 사랑했으리라는 것을

이 글에 대해 박순주는 다음과 같이 썼다.

자하와 추사가 예(藝)의 어느 부분을 주제로 대화를 했는지 위의 시에서는 나

345) 신위 저, 권경렬 역, 전계서, p.80.

346) 박순주, 「한국 전통다회 연구」(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2001), p.3.

347) 申緯 著, 孫八洲 編, 「申緯全集」 第二集, p.624. <西省直廬 每申刻 與秋史談藝 至夜分 得詩 凡四首>.

와 있지 않으나 하손(何遜)과 범운(范雲)이 중국 양(梁)나라의 시인들이므로 시에 관해 논의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를 짓는다는 것은 조선의 선비들에게는 인격도야의 중요한 단계라고 한다. 공무를 수행하는 분주한 일상에서도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갖고, 그 시간 중에 시를 지으며 진지한 다담을 나누는 신위와 추사의 찾자리는 선비들의 수신을 위한 공부하는 자세도 보여주고 있다.³⁴⁸⁾

신위가 어느 봄날 밤에 손님을 맞아 차를 마시며 담소를 하고 거문고를 뜯고 노래를 부르는 등 음악적 분위기가 충만한 가운데 찾자리를 가진 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琴上移情初動操	처음에는 거문고에 정을 붙이고 마음을 쏟다가
閑中藥倦復針慵 ³⁴⁹⁾	다시 한가하게 소요하고 담소하네
歌殘畫壁燈光暗	노래가 끝나자 그림 걸린 벽에는 등불 빛이 흐릿하고
客去茶烟酒氣濃 ³⁵⁰⁾	객이 간 뒤 차 연기와 술기운이 짙어가네
.....

이 모임은 거문고, 담소, 노래가 있는 찾 자리이며, 이 모임의 전개 과정은 손님이 모인 자리에서 거문고가 연주되었고, 음악이 끝나고 차를 마시며 다담을 나누었다. 다시 노래를 부르고 모임이 끝난 것으로 되어 있다. 노래를 했다는 것은 목소리로 무엇인가를 연주했음을 말해 준다.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음악을 즐긴 것이다.³⁵¹⁾

신위가 초의 장의순과 산사에서 만나 차를 마시며 지은 내용은 “苦茗巖時宜砭

348) 박순주, 전계 논문, p.21.

349) 약권(藥倦)·침용(針慵)은 문심조룡(文心雕龍)에 “逍遙以針勞 談笑以藥倦 (한가롭게 거닐면서 피로를 풀고 담소하면서 권태를 치료한다.)” 라는 구가 있다.

350) 박순주, 상계 논문, p.22.

351) 상계 논문, p.22.

俗 (차 마시며 세속을 벗고) / 好詩佳處合參禪 (좋은 곳에서 좋은 시 대하니 참선하는 경지로다.)³⁵²⁾ 인데 이는 두 사람의 다회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신위는 찾자리를 세속을 떠난 참선의 경지라고 표현하고 있다. 초의는 신위의 덕과 시재(詩才)를 높이 사서 스승의 비명을 부탁하고 함께 차를 마셨다.

352) 효동원편, '北禪院謁紫霞老人', 「다향선미」, p.363.

V. 신위의 음다 정신

‘차는 선이고 도이며 다도는 선 수행과 같다.’

다명(茶茗)이 선(禪)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 이유는 음다는 나태함과 잠을 쫓고 참선할 때 의식을 맑게 해주며, 다도와 참선의 목적이 삶의 진리인 도를 얻기 위함이며, 차를 끓이고 마시는 다사(茶事)에서 속세의 망상이나 집착을 떨치게 된다. 따라서 차를 마신 후에는 선 수행에서 얻어지는 것과 같이 정견(正見)을 갖게 되고, 의식에 하나의 전기가 마련되기도 하여 자신과 큰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³⁵³⁾

‘다(茶)와 선(禪)’에 대해 당나라 때 조주 선사 [(趙州 禪師): 778-897]의 일화를 보면, 조주 선사는 중에게 물기를 “일찌기 이곳에 와 본 일이 있느냐?”고 하였더니 그 중이 “이곳에 온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조주 선사는 “차나 마시고 가게”라고 하였다. 또 다른 중에게 같은 내용을 묻자 중은 “전에는 와 본 일이 없었습니다”라고 여쭙었더니 조주 선사는 “차나 마시고 가게”라고 하였다. 훗날 원주(院主)가 물기를 “전에 와 본 일이 있다고 하여도 차나 마시고 가라 하시고, 전에 와 본 일이 없었다고 하여도 차나 마시고 가라고 하시니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라고 하자, 스승은 원주에게 “내가 원주에게도 차나 마시고 가라”하는 것을 “응락 하여 주시오”라고 하였다. 이처럼 조주 선사는 사람을 접하면 문득 “차나 마시고 가게”라고 하여 조주 선사의 차는 세상에 많이 일컬어졌고 차의 도는 마침내 선에 속하게 되었다.³⁵⁴⁾

이에 대해 김명배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353) 정영선, 「다도 철학」, pp.164-165.

354) 김명배, 「다도학」 (서울: 학문사, 1984), pp.284-285.

그러나 조주 선사는 아깝게도 다선삼매라는 말을 제창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고려의 이규보는 <房壯元衍寶見和次韻答之 (장원 방연보의 화답시를 보고 운을 이어서 답하다.)>³⁵⁵⁾ 라는 다시로써 세계 최초로 다선삼매의 경지를 제창하였던 것이다. ‘다선삼매’의 선창자가 이규보라는 데 대해서는 일본의 다도계에서도 시인하고 있다.³⁵⁶⁾

조주선사(趙州禪師)가 그 유명한 선문답(禪問答) <깍다거>를 남겼다고 하지만 ‘다선일여(茶禪一如)’를 선창한 것은 고려의 이규보였다.³⁵⁷⁾

신위는 선승들과 빈번히 교류하며 불교에 깊이 심취해 ‘다(茶)와 선(禪)’을 동일시하여 선을 바탕으로 한 시를 지었다.

다음의 시는 신위가 음다 생활을 통하여 수양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
苦茗嚴時宜砭俗	쓴차 마시는 엄한 시간은 속인의 정신을 차리게 할만하고
好詩佳處合參禪	좋은 시와 아름다운 장소는 참선하기에 좋다네
乞銘二夢師如在	명을 구함에 두 세상의 스승은 살아 있는 듯 하니
彈指三生性自圓	손가락 튕기는 시간처럼 짧은 삼생에 마음은 저절로 원만
	해 지네 ³⁵⁸⁾

355) 김명배, 「다도학」, p.285. “草庵他日叩禪居 (초암의 다른 날 선방을 두드려) 數券玄書 討深旨 (몇 권의 오묘한 책 깊은 뜻을 토론하리) 雖老猶堪手汲泉 (늙기는 했어도 오히려 손수 샘물 뜰 수 있으니) 一甌卽是參禪始 (한 사발을 곧 이것이 참선의 시작이라네).”

356) 상계서, p.285.

357) 이해자, 「韓國古典詩歌 속의 茶道思想」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94), p.100.

358) 김명배, 「韓國 茶詩 鑑賞」, p.71. <艸衣次余贈錦舩詩韻 甚佳 故更用原韻 賦示 時艸衣 爲其師玩虎大師建三如塔 乞銘詩於海居都尉 乞序文於余 而遺以四茶餅 卽其手製 所謂 寶林白茅也 詩中并及之>.

위의 시 내용은 차를 마시는 엄한 시간에 속인들은 깨우침을 얻는다는 말이다. 즉 신위의 '다선일미(茶禪一味)'사상이 보이는 시이다. '다선일미(茶禪一味)'는 선과 차를 우러러 되새기게 하는 좋은 말이다.³⁵⁹⁾

조선 말엽 다도 중흥기를 맞았던 때의 자하 신위의 다음 시 내용에서는 '다선일여(茶禪一如)' 사상을 엿 볼 수 있다.

暖日恬風雨後天	비온 뒤의 하늘엔 따스한 해와 고요한 바람
秒秋那得此清妍	늦가을 녀 어찌 이렇게 맑고 고울까
車音入滑泥爲海	수레소리 조용해지니 진흙이 바다 같고
茶味回恬睡是禪	차 맛이 달큰하게 감돌아 졸리운 듯 하니 이것이 바로 선이구나. ³⁶⁰⁾

.....

신위가 차를 마신 후에 마음이 평정해져서 선(禪)에 몰입했을 때와 같은 편안한 상태에서 지은 시이다. 그는 또한 “飯潔醪香穢病肺 (깨끗한 밥 향긋한 술은 병든 폐를 소생시키고) / 茶甘粥白供詩禪 (달콤한 차와 흰 죽은 시와 선에 이바지 하네)”³⁶¹⁾ 라고 하여 차는 병든 폐를 소생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시와 선에 이바지한다고 하였다.

359) 이광주, 「동과 서의 茶 이야기」 (서울: 한길사, 2002), p.58.

360) 정영선, 「다도 철학」, pp.167-168. <東關驛至涼水河作>.

361) 정상구, 전계서, pp.328-329.

VI. 결 론

자하 신위의 저서인 『경수당전고(警修堂全藁)』를 중심으로 그의 음다 생활을 고찰해 보았다.

신위는 당쟁과 승속의 한계를 넘어 폭 넓은 교유를 하였는데 그 매개체는 주로 ‘차(茶)와 시(詩)’였다.

지금까지 다시를 통해 정리한 신위의 음다 생활의 면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의 음다생활의 내용을 살펴보면 차의 종류에서 떡차로는 용척차, 보림백모, 학원차, 단차, 월단차 등과 말차와 혼합차인 매화차도 나오는데 신위는 주로 떡차를 즐겨 썼다.

둘째 다구의 내용에서는 물을 끓이는 용기로 ‘석요(石銚)’와 ‘쟁(鑊)’이 있었으며, 찻잔류에서 그는 완(椀), 구(甌), 배(杯), 종(鍾), 잔(盞)등을 썼고 신위는 구(甌)를 많이 쓴 것이 특징이다. 신위가 살았던 그 당시에는 차를 끓일 때 불을 담거나 피우는 용기로 다로(茶爐)를 썼으며, 그 종류로는 죽로, 목로, 돌화로, 질화로가 있었다. 신위의 시에는 ‘다로(茶爐)’도 등장하지만 ‘다로(茶鑪)’가 많이 등장한다. 신위의 시에 나오는 다른 다구로는 다반(茶盤)과 표(瓢)가 나오는데 ‘다반(茶盤)’은 차나 다과를 담아 낼 때 썼던 받침이며, ‘표(瓢)’는 차물을 뜰 때 쓰는 박으로 만든 작은 바가지 즉 표주박을 말한다.

셋째 팽다법에서 신위는 차 끓이는 용어로 ‘팽다(烹茶)’, ‘전다(煎茶)’, ‘점다(點茶)’, ‘약다(瀹茶)’, ‘투탕(投湯)’ 등의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모두 차를 끓인다는 의미이며 신위의 시에서는 이러한 용어들을 고루 썼다. 신위의 시에는 또 차의 보관법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으며 이는 오래된 차를 버리지 않고 새차와 섞어서 서로 배어들기를 기다렸다가 사용했다고 했고, 그 당시 차의 맛을 잘 내기로 유

명했던 신위는 정약용 다법에 따라 차를 담백하게 끓였다는 내용도 시에서 언급했다.

신위는 차의 보관법과 정약용 다법 이외에도 차가 끓을 때 생기는 거품을 계의 눈에서 나는 거품에 비유한 '해안차'와 찻물이 끓은 소리를 솔바람 소리에 비유해 '송풍탕'이라고 묘사한 시가 다수 있다.

넷째 차겨루기의 한 형태이며 차를 달여 시음하여 차의 품질이 좋고 나쁨을 품평하는 품다의 내용에는 차의 맛과 향기와 색에 관한 내용들이 다수 있었으며, '투다향(投茶香)'이라고 하여 다우와 함께 차의 향기를 겨루었다는 시도 있었다. 신위는 차의 맛을 단맛과 쓴맛으로 표현을 했으며, 차의 향기와 색을 통해 찻자리를 맑게 정화 할 뿐만 아니라 높은 정신적인 경지에까지 이르려는 구도적인 삶의 단면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그가 차를 끓이는 전 과정에서 어느 한 순간도 소홀하지 않고 정성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그는 차를 끓이는데 있어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물에 따라 차맛이 달라진다는 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우물물과 샘물, 강물, 눈 녹인 물로 차를 끓여 마셨다고 읊었다. 그리고 '냉천정', '한보정', '석간천', '유천', '방두천' 등 정확한 샘물의 명칭을 거론하고 있다.

땀감에서는 '송탄(送炭)'은 너무 사치스러워 낙엽을 태워 차를 끓여 마셨다고 표현하고 있고, 신위가 송탄을 이용해 차를 끓여 마신 것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 송탄은 꽤 귀중한 땀감이었음을 시에서 언급했다.

여섯째 신위의 시에서 손수 차를 끓여 마셨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많은 이유는 그가 자신의 수양과 맑은 마음을 보존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고, 이와는 반대로 신위의 음다 생활에는 차를 끓여 주는 아이가 따로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의 시도 많다.

일곱째 신위의 생활에서 차를 마시는 때가 따로 정해지지 않았고 시상에 뚜렷이 나타난 신위가 차를 마셨던 때를 하루중의 때와 절기중의 때로 구분해 보면

하루 중의 때에는 석양 무렵에 마셨다는 시가 많았고, 절기 중에서는 중양절, 칠석날, 설달그믐에 차를 마셨다고 했으며, 계절 중에서는 봄과 가을에 마셨다고 표현한 시가 많았다. 이는 시를 쓰는 절기와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덟째 신위의 시를 통해 그의 음다 공간을 살펴보면 전용 음다 공간을 중시한 단어로 '다옥(茶屋)'에 관련된 식귀가 여섯 번 정도 나오고, '다실'은 다시문 속에 방이나 실로 많이 등장했으며 '번경실(番經室)', '벽로방(碧蘆舫)', '소합(小閣)'등과 같이 구체적인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다옥과 다실 외에 신위가 차를 마셨던 공간으로 별장이 등장하며 감옥에서도 차를 마셨다. 이와 같이 신위는 그가 머무는 곳이면 어디든지 음다 공간이 되었는데 이는 음다 자체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지어진 일본의 다실과 구별된다. 그리고 다옥과 다실의 배치물로 수선화와 국화, 꽃꽂이 한 꽃이 시상에 나오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의 다화라 할 수 있다.

아홉째 신위의 다시를 통하여 문화적 교류를 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는 당파와 종교를 초월해 많은 인물들과 교류 하였고, 그의 시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차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인물은 김정희, 장의순, 정약용, 우초·소음, 권영좌, 오승량 등이었으며, 이 중 오승량은 청나라 사람이다. 그의 시에는 또 소수의 인원이 모여 차를 마셨음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시상에 나타났으며, 김정희와는 '예(藝)'에 관해 논했었다.

열째 신위는 생애 후반에 부인이 죽자 불교에 심취하면서 많은 선승들과 교류를 했었는데 특히 초의와는 차를 통해 참선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이상 신위의 음다생활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조선후기 다문화사(茶文化史)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한 작가로서의 위상을 파악하면 신위는 다도생활의 깊이와 성취를 통해 다도관을 새로운 작품세계의 창작의 원동력으로 삼았으며 많은 다시(茶詩)를 남김으로서 다문화사(茶文化史)에서 조선후기의 대다인(大茶人)으로서 학문적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다문화의 중흥조라 일컫는 다산 정약용과 교류하면서 초의 장의순보

다 17년이나 먼저 태어난 신위는 당대에 다도 문화가 중흥되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그의 시속에 있는 음다 생활은 현대 다도에 귀감이 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김철환. 「漢韓大字全」. 서울: 민중서림, 1997.
- 김종직. 「점필재집」.
- 김명배. 「韓國의 茶詩鑑賞」. 서울: 대광 문화사, 1998.
- _____. 「茶道學 論攷」 제 1권. 서울: 대광 문화사, 1996.
- _____. 「茶道學 論攷」 제 2권. 서울: 대광 문화사, 1996.
- _____. 「中國의 茶道」. 서울: 명문당, 1985.
- _____. 「茶道學」. 서울: 학문사, 1984.
- 김상현. 「韓國의 茶詩」. 서울: 태평양, 1986.
- 구마쿠라 이사오 저. 김순희 역. 「다도와 일본의 미」. 서울: 소화, 1998.
- 박정도. 「중국茶的 향기」. 서울: 박이정, 2001.
- 신위. 「警修堂全藁」. 서울: 태학사, 1983.
- 신위 저. 권경렬 역. 「다옥에 손님오니 연기가 피어나네」. 서울: 너럭바위, 1998
- 신위 저. 손팔주 편. 「申緯全集」 第一集. 서울: 태학사, 1983.
- _____ . 「申緯全集」 第二集. 서울: 태학사, 1983.
- _____ . 「申緯全集」 第三集. 서울: 태학사, 983.
- _____ . 「申緯全集」 第四集. 서울: 태학사, 1983.
- 손팔주. 「신위연구」. 서울: 태학사, 1983.
- 신석초. 「石北·紫霞 詩集」. 서울: 대양서적, 1975.
- 석용운. 「韓國 茶藝」. 서울: 초의, 1988.
- 이광주. 「동과 서의 茶 이야기」. 서울: 한길사, 2002.

- 이기윤. 「韓國의 茶文化」. 인천: 개미, 2000.
- 유성준. 「신위 작품집」. 서울: 형설 출판사, 1982.
- 임재택외 4명. 「선생님! 세시풍속이 뭐예요?」. 서울: 양서원, 2001.
- 정약용 저. 박석무 역.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1.
- 장의순 저. 임종욱 편. 「초의 선집」. 서울: 동문선, 1993.
- 장의순 저. 정영선 편. 「동다송」. 서울: 너럭바위, 1998.
- 정영선. 「다도 철학」. 서울: 너럭바위, 1996.
- _____. 「한국의 茶文化」. 서울: 너럭바위, 1998.
- 정상구. 「名茶詩鑑評」. 부산: 세종 문화사, 1995.
- 장영동. 「한국 다도의 속 멋」. 서울: 빛남, 1999.
- 정옥자. 「우리 선비」. 서울: 현암사, 2002.
- 중앙대 한국사편. 「한국사요」.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1989.
- 장삼식. 「실용대사전」. 서울: 교학사, 1980.
- 허경진. 「자하 신위 시선」. 서울: 평민사, 1991.
- 한승원. 「艸衣」. 서울: 김영사, 2003.
- 효동원 편. 「다향선미」. 서울: 비봉출판사, 1986.

학위논문

- 김미선. “초의 장의순 시의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1999.
- 김동진. “자하 신위의 예술정신에 대한 일 고찰”. 석사학위논문. 안동대학교 대학원, 2002.
- 강미자. “자하 신위의 예술세계”.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전통예술대학원, 2003.

- 김현정. “자하 신위의 서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4.
- 권난희. “자하 신위의 동인논시절구”.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1995.
- 김성희. “자하 신위의 제화시 고”.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89.
- 나남미. “조선후기 다도 사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1997.
- 백기란. “다송자 다시 고찰”.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2002.
- 방경순. “자하 시 연구”. 석사학위논문. 상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1988.
- 박순주. “한국 전통다회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2001.
- 손팔주. “신위 시문학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84.
- 신미경. “동다송 고찰”.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2001.
- 신상기. “자하 신위의 문인 서화”.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2003.
- 이혜자. “한국고전시가 속의 다도사상”.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94.
- 유은희. “자하 신위의 문인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정신문화 연구원, 1983.
- 육선자. “한국 읍다공간의 역사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2002.
- 이연세. “자하 신위의 시문학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1990.
- 안귀선. “한·일 양국의 다도의 특성 고찰”.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 조성주. “자하 신위의 예술사상 형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1996.
- 정원표. “자하 신위의 한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7.
- 차길선. “자하 신위의 시문학 시고”.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1999.

정기 간행물

유희재. “중국고전의 다시 감상”. 茶文化연구지. 한국 茶文化 연구소. 1991
pp.33-34.

정영선. “한국 다문화의 중흥조론”. 茶文化 연구지. 한국 茶文化 연구소. 1983
p.7.

정영선. “한국 다문화의 중흥조론”. 茶文化 연구지. 한국 茶文化 연구소. 1998
p.13.

정영선. “다시의 이해와 감상”. 설록차 2003. 3/4. 태평양 건강사업본부, p.31.

정영선. “煎茶의 시”. 설록차 2003. 11/12. 태평양 건강사업본부, pp.34-35.

정영선. “눈(雪)내린 날의 찾자리”. 설록차 2004. 1/2. 태평양 건강사업 본부
p.33.

권경렬. “조선시대 문인들의 다시문”. 茶文化 연구지, 한국 다문화 연구소. 1996
p.35.

인터넷 사이트

세시풍속과 24절기: <http://www.sdongs.com/>

세시풍속과 음식: <http://my.dreamwiz.com/mylee2000/>

한국의 세시풍속: <http://myhome.netsgo.com/nani77/>

ABSTRACT

A Cultural Study on Tea-Drinking-Life of Jaha(紫霞) Shinwi(申緯)

- Centering around Kyoungsoodangjeongo 『警修堂全藁』 -

Tak, Hyo Young(卓孝榮)

Major in Propriety and Tea-ceremony(禮節茶道專攻)

Dept. of Cultural Industry(文化產業大學院)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誠信女子大學校)

According to The Chronicles of Three States(三國史記) which is historical material that we can see that our customs to drink beverage was settling in the 7th century, it is saying, "There was tea since Queen Sungduk(632-647). So, we can confirm that there were tea tree and tea as beverage in 647 at least.

Tea ceremony culture of Korea which prevailed in the 7th century prospered all the more in Koryo period, and it declined little by little with the decline of Buddhism since the beginning of Chosun period, but the vein had been maintained by scholars and monks. Then, while the efficacy of tea was proved since the beginning of recent times,

demand is increasing rapidly up to modern age, and it came to occupy the important part of Korean traditional life culture.

Jaha(紫霞), Sinwi(申緯)(1769-1845) who was a person in the period when tea culture(茶文化) revived which is the latter period of Chosun period left 100 pieces of poems or more for tea(茶), and he is a great tea person who loved tea(茶). In the meantime, much data for Sinwi appeared. But, most of them were the data for study which emphasized the contents of 3 verses, poem, calligraphy, and painting, and there was not the study on the life to drink tea. In this study, this researcher tries to study the tea life of Sinwi by emphasizing Sinwi life to drink tea through tea poems which appeared, Kyoungsoodangeongo(警修堂全藁) to be the anthology of Sinwi.

To consider tea affairs(茶事), there is record that they drank rice-cake tea such as Yongcheok tea(龍脊茶餅), Bolimbaikmo(寶林白茅), Hanwon tea(壑源茶), Dan tea(團茶) and Woldan tea(月團茶) etc. and ume tree tea which is end tea and mixed tea joyfully.

As for tea tools(茶具), there are pipkin, teacup, brazier, and teatray(茶盤). And, to consider how to swell tea(烹茶), steaming tea(煎茶), boiling tea(點茶), spotting tea(瀹茶), etc. were used as the terms in boiling tea, and there is the record on keeping method, tea method, and the phenomenon to appear in boiling tea also. Sinwi showed that there are sweet taste and bitter taste in the taste of tea, and he is recording perfume and color also. And, he mentioned what is about the importance of water and firewood in boiling tea.

And, he boiled tea in person, but there are many records that he drank tea that a tea child(茶童) boiled, and there is the record that he drank tea at central season, the seventh day of the seventh month, and New Year's Eve which are the special 24 divisions of the year.

As for the spaces to drink tea, it is said that he drank tea at teahouse(茶屋), tearoom, prison, and Mr. Ban's house. And, as for the tea people around Sinwi, there is the record about Dasan(茶山) Jeong Yak-yong(丁若鏞), Chusa(秋史) Kim Jeong-hi(金正喜), Choui(艸衣) Jang Ui-sun(張意洵), Misan(米山), Kwon Yoing-joa(權永佐) and Ranseol (蘭雪) Oh Seung-ryang(吳嵩梁) to be the people of Ch'ing also. It is said that he reached Zen through tea.

As a famous poet, writer, and painter in the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y, he is said to have practiced Zen through tea while taking interest in Buddhism and getting more closely acquainted with Zen monks, particularly with Choui(草衣) Jang Ui-sun(張意洵), in the latter part of his life.

Jaha, Sinwi left great achievements in the affairs of Korean tea ceremony culture. And, today, there is many things that tea people should model manners from tea affairs(茶事) or tea-drinking-tea.